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194-01

2015. 12.

사례연구를 통한 농촌 복지문화 모형 연구

연구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he logo for KREI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is centered within a large, stylized circular graphic. The graphic consists of several concentric circles and arcs, some solid and some dashed,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The text 'KREI' is rendered in a bold, blue, sans-serif font.

농림축산식품부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사례연구를 통한 농촌 복지문화 모형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조 미 형 연구위원

요 약

연구의 배경

농촌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읍면 중심지에서 마을 주민에게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물리적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농번기, 농한기 구분, 계절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농촌지역에는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지어진 시설 공간의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내용 및 추진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을 검토하고, 복지관 재가복지 담당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FGI를 총 2회 실시하고, 노인복지관 및 분관, 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섯 기관을 방문하여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밀반찬배달서비스, 세탁서비스, 건강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복지셔틀버스 운행, 병원 동행 및 장보기 대행 서비스 등을 검토하였다. 조사결과, 농촌지역에서 복지·문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 단위 사업 지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면 지역에 상주하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등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자원봉사자로 조직하여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의 제안은 예산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여, 새로운 사업 내용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서 원거리지역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엮어서 제공하는 ‘작은 농촌복지관’ 운영을 제안한다. 단순히 프로그램 제공 역할을 넘어 주민의 복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마을 스스로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서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동 불편 재가노인 등의 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때 마을 스스로 돌보는 체계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참여시키는 형태로 지역사회의 연대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성을 통해 사람이 변화·개선되는 것이다. 농촌복지를 실천하는 현장에서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농촌 주민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4
- 3. 연구내용 및 방법 6

제2장 지역의 복지·문화 사업 현황

- 1. 농촌지역 복지관의 복지·문화 사업 9
-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6
- 3.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29
- 4. 심부름센터 35
- 5. 자원봉사센터 38
- 6. 푸드뱅크/푸드마켓 50
- 7. 기타 복지관에서 외부 공모 등을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52

제3장 농촌 복지·문화 사업 운영 실태

- 1. 농촌 복지·문화 사업 운영 현황 59
- 2. 농촌 대상 신규 복지·문화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72
- 3. 농촌 복지·문화 사업 추진 방향 78

제4장 농촌 복지·문화 사업 추진 방안

- 1. 추진 방향 89
- 2. 추진 방안 92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99
2. 결론 및 함의	101
부록 1. 사회복지사 인터뷰 내용	103
부록 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중에서 재가노인관련 서비스	104
부록 3. 의성군노인복지관 기관 개요 및 프로그램 내용	113
부록 4. 고창군노인복지관 “곱디고운 할매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업실행계획서	124
참고 문헌	125

표 차례

제1장

표 1- 1. FGI 및 사례조사 대상	7
-----------------------------	---

제2장

표 2- 1. 전국 복지관 현황	10
표 2- 2. 사회복지관의 사업(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11
표 2- 3. 사회복지관 사업 중 복지·문화 관련 사업	12
표 2- 4.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13
표 2- 5.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15
표 2- 6. 2015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사업	17
표 2- 7. 읍면지역 소재 재가지원서비스 수행 기관 수	26
표 2- 8. 2015년 의성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사업	28
표 2- 9. 전라북도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사업 현황	36
표 2-10. 전국 자원봉사센터 현황	38
표 2-11. 농가먹기운동 참여 봉사단체 현황	40
표 2-12. 농가먹기운동 활동내용별 자원봉사단체·봉사자 현황	41
표 2-13. 농가먹기운동 연계기관 및 단체	45

부록 2)

부표 2-1. 재가지원서비스 내용(예시)	106
------------------------------	-----

부록 3)

부표 3-1. 연도별 신규 회원 등록 현황	115
부표 3-2. 의성군노인복지관 본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117
부표 3-3. 의성군노인복지관 분관 2015년도 하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시간표 ..	118
부표 3-4. 2014년 경로당 활성화사업 일정표	123

그림 차례

제2장

그림 2-1. 농가먹기운동 터	43
그림 2-2. 농가먹기운동 활동 사진	44
그림 2-3. 농가먹기운동 엠블렘	44
그림 2-4. 농가먹기운동 전달체계	46

제4장

그림 4-1. 작은 농촌복지관 모델	93
---------------------------	----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농촌지역에서는 서비스의 주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비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접근성 문제는 크게 ‘서비스 부재나 부족’으로 인한 부분과 시간·거리·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접근성 제한’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기초적인 인프라가 있는 경우라도 대부분 읍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인근 지역 주민이나 셔틀버스 운행지역 주민은 이용 가능하지만, 그 범위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된다.
 -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 평균 이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제공되기 때문에 농촌 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곳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내려오는 사업들은 농촌 지역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규격화된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 농촌지역에서는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읍·면-리(마을)-주민’으로 중간에 마을 단위에 대한 고려를 강조한다(박재홍, 2013).
 -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서비스 수요가 많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시설을 구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복지, 문화, 의료, 고용 등의 서비스 연계가 더욱 필요하지만, 단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농촌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정부 사업들은 대부분 도로나 건물 등 하드웨어에 지원되어 왔다.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통하여 복지·문화 서비스 기반 구축이나 타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가능하지만, 그 사례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중심지에 구축되어 있는 기본적인 복지·문화 인프라를 배후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개발 사업에서 복지·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 지역의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고, 전달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방식의 사업추진은 주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별 맞춤형 복지·문화 사업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사례를 제시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주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에 소규모 체감형 복지 프로그램(농촌 행복꾸러미)을 연계시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농촌 행복꾸러미는 ‘거동 불편 어르신 밑반찬 배달서비스’, ‘이동식 세탁소

운영’, ‘글쓰기·독서교실’과 같은 소규모 복지프로그램 묶음을 의미한다.

- 그동안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복지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그 중에서 주민 요구도가 높은 관련 프로그램 10개를 농촌 행복꾸러미로 선정하였다.

- 기초생활형: 반찬배달, 이동식 세탁소, 장보기 대행, 병원 동행, 방문 목욕, 복지셔틀 등
- 보건의료형: 건강체조교실, 치매진단·예방프로그램 등
- 소득연계형: 글쓰기·독서교실¹⁾ 등

- 농촌 행복꾸러미에 포함된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따라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기존 사업들이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농촌지역의 불리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과 차별화되는 주요 지점일 것이다.
 - 현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과 함께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역량 강화가 병행될 수 있는 사업 수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개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가능한 마을단위로 공급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및 중앙부처, 민간에서 실시 중인 복지·문화 사업 중에서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하여 농촌지역에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복지·문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예를 들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해 직접 판매할 경우 유통업체를 거치는 것보다 소득이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글쓰기 훈련을 하는 것이다. 즉 진정성 있는 글쓰기를 통해 소비자와 소통함으로써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 농촌지역을 도시지역과 다른 하나의 집단으로 설명할 수 없다(조미형 외, 2014).
 -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리적 여건이 읍지역을 중심으로 모아질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인근 도시지역으로 생활권이 묶이면서 분산되는 지역도 있다.
 - 농촌사회복지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혹은 농촌 생활세계 관점으로부터 농촌 인구집단이나 지역사회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Irwin, et al., 2010; 조미형 외, 2014 재인용).

- 농촌지역개발 분야에서 농촌중심지 육성/활성화의 차원에서 서비스·시설 복합화나 프로그램 연계 필요성을 주장한다.
 - 중심지 육성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의 연계 방안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규 시설 조성 시 운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위해 해당 시설이 복합기능을 갖도록 다양한 사업을 연계 추진하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성주인 외, 2008).
 - 읍·면 중심지에 관련 기능이 복합·연계된 공공서비스 거점을 형성하고 배후마을을 순회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효율 증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이재준 외, 2010; 김정연 외, 2010).

-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역량 강화의 차원에서 커뮤니티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체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복합적 공간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김정연 외, 2010; 성주인 외, 2013).

- 농촌지역에서 서비스 욕구가 많은 인구집단인 노인의 건강관리실태를 조사한 연구(조미형 외, 2013)에서 건강수준에 따라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및 송영지원 등이 필요하고,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를 주장하였다.
 - 농촌 허약노인은 건강한 노인에 비해 우울감 경험 비율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연구 결과에서 도시락·밀반찬배달 등 외부에 의존해서 식사를 해결하는 노인일수록 식사가 더 불규칙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거동이 가능한 재가노인은 일주일에 1~2회라도 외출을 유도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 식사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집안에만 있지 않고 외출을 하게 되면, 최소한 세면과 옷단장도 하게 되고 사람들과 인사라도 나누면서 우울감이 줄어들 수 있다.
 - 이용자 입장에서 집으로 식사를 배달하는 것을 선호하고, 공급자 입장에서 요리교실 및 장보기 등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나 외식 지원에 비해 수월한 방식이다. 하지만, 이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이들의 기능을 퇴화시켜 더욱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복지실천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한다.
 - 허약노인 중에서도 43.0%는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힘에 부쳐 있으며, 특히 여성노인들이 더욱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노인들이 신체에 부담을 덜 느끼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도록 농번기에 집중 운영하는 마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농촌지역에서 장기요양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였지만,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지원은 필요한 노인들이 있다(조미형 외, 2013).
 - 이들은 식사 준비 주 2~3회, 집안청소나 세탁 주 1회, 외출 지원 월 1~

2회, 장보기 월 2~3회, 목욕 월 1회~주 1회 정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지역에는 고령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서 식사준비나 집안 청소, 세탁 등을 욕구가 많다. 또한 병원 진료, 장보기, 행정처리, 서비스 이용 등 마을 밖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한 외출이 쉽지 않다.
-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서는 노인 대상 사업 중에서도 허약한 농촌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 중에서 제2장에서는 지역의 복지·문화 사업 현황을 살펴본다. 복지관의 복지·문화사업, 노인복지사업 중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심부름센터, 자원봉사센터, 푸드뱅크/푸드마켓, 그리고 기타 복지관에서 외부 공모 등을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제3장에서는 농촌지역 복지·문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정리하였다.
 -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 복지·문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3.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및 중앙정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편적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분석한다.
 - 사례조사·분석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이 주민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 다음의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두 차례에 걸친 FGI를 실시하고, 의성군노인복지관 및 분관, 의성군노인복지센터,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등 다섯 개 기관 방문 조사 등을 통해 농촌 복지·문화 사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인터뷰 내용은 <부록 1> 참고).
 - 우선,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농촌지역이라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에 대해 논의한다.
 -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이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표 1-1. FGI 및 사례조사 대상

	대상	인원	비고
1	전라도 재가복지담당자 FGI	3명	고창군노인복지관,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진도노인복지관
2	강원도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자 FGI	3명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3	의성군 노인복지기관 관리자 및 담당자	4명	의성군노인복지관, 의성군노인복지관분관, 의성노인복지센터
4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관리자	1명	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사회복지심부름지원센터
5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소장	1명	농가먹기운동

제 2 장

지역의 복지·문화 사업 현황

1. 농촌지역 복지관의 복지·문화 사업

1.1. 복지관 현황 및 사업내용

1.1.1. 복지관 현황

-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따르면, 세 가지 유형의 복지관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15c p.7).
 -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15b pp.119~120).
 -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

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다(보건복지부, 2014a p.68).

- 83개 군 지역에는 총 131개의 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다. 사회복지관은 38개소에 그치고, 노인복지관이 56개소, 장애인복지관은 37개소이다(조미형 외, 2014).
 - 인제군, 산청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고령군, 울진군, 곡성군, 신안군, 순창군, 평창군, 철원군, 영양군 등 13개 지역에는 복지관이 없다.
 - 70개 군 지역에서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복지관이 있는 것이다.

표 2-1. 전국 복지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지자체수	합계	사회복지관 (’14)	노인복지관 (’13)	장애인복지관 (’14)
전체	230	966	441	319	206
광역시/일반시	93	609	305	192	112
도농복합시	54	226	98	71	57
군	83	131	38	56	37

주: 군 지역에 소재한 노인·장애인 복지관 4개소는 장애인복지관에 포함.

자료: 한국사회복지관협회홈페이지. 『전국사회복지관 현황』(2014.6.30. 기준);

보건복지부(2014b). 『노인복지시설 현황』(2013.12.31. 기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홈페이지. 『회원기관 현황』(2014.6.30. 기준).

출처: 조미형 외(2014: 22). <표 2-7>의 일부임.

1.1.2. 복지관 사업내용

가. 사회복지관

- 지역 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대 기능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이며, 이 중에서 지역사회보호와 교육문화 사업은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대부분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이다.

표 2-2. 사회복지관의 사업(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
사례관리	사례발굴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사례개입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제와 욕구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 개입
	서비스연계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연계, 의뢰
서비스제공	가족기능강화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가정문제해결·치료사업, 부양가족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 - 급식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경제적 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서비스, 일시보호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교육문화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성인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 일반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	직업기능훈련,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그밖의 특화사업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 구축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 -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주민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 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주민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주민협력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교육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사업 -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 복지관 사업 중에서 농촌 주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복지·문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표 2-3>에 제시하였다.

표 2-3. 사회복지관 사업 중 복지·문화 관련 사업

분야	사업	내용
지역 사회 보호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를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 서비스
	재가복지봉사 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교육 문화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 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 교육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노인 여가·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사업(노인대학)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그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출처: 보건복지부(2015c). 『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일례로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의 교육문화 수강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요가, 서예, 사물놀이, 컴퓨터교실, 한지공예, 가죽공예, 가요난타, 노래교실, 생활체조, 에어로빅, 실버무용, 한글교실, 한문교실, 영어교실, 산수교실, 사진반, 고리던지기&투호 등이 있으며, 동아리활동지원사업으로 난타동아리, 5080 밴드, 동백꽃생활체조동아리, 은빛구름복운중창단, 태극권, 색소폰동아리 등이 있다(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나. 노인복지관

-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세 이상 노인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강프로그램들이 있다.
- 평생교육, 취미여가 프로그램은 노인의 욕구에 맞춰 새로운 강좌가 개설되고, 참여율이 저조하면 폐강되는 등 기관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된다.
 - 물리치료 등 기능회복 프로그램이나 각종 건강체조 및 건강운동 프로그램에 참여도가 높다.
 - 건강생활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생활체육협의회), 지역사회단체, 노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로당 등을 활용한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에 우선 지원하도록 강구하고 있다.
 - 독거노인지원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복지서비스와 동일한 사업이며, 경로식당, 밀반찬·도시락배달이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과 연계하여 식료품 지원도 하고 있다.
 - 복지관 이용노인들은 우울증 예방이나 죽음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많다.

표 2-4.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노인	평생교육지원	한글, 외국어, 교양교실, 정보화교육, 인문학교육, 예비노인을 위한 은퇴준비 등	
	취미여가 지원	예능(음악, 미술, 생활도예, 서예, 댄스), 문화(연극, 사진, 영화, 바둑, 장기, 레크리에이션), 취미(종이 접기, 뜨개질, 민속놀이), 체육(탁구, 당구, 게이트볼), 동아리활동 등	
	건강생활지원	기능회복지원	물리치료, 양·한방진료, 작업치료, 운동재활, ADL훈련 등
		건강증진지원	건강교육, 건강상담, 건강교실(건강체조, 기체조, 요가 등), 독거노인지원사업(기존 재가사업), 이·미용, 노인건강운동 등
		급식지원	경로식당(중식서비스), 밀반찬·도시락배달, 푸드뱅크 등
		요양서비스	치매·뇌졸중환자 프로그램, 주·야간보호
상담사업	노인의 일반상담(이용상담, 접수상담), 전문상담(경제, 법률, 주		

		세부 프로그램
		택상담, 연금상담, 건강상담, 세무상담, 심리상담, 치매상담, 노인학대상담
	정서생활지원	우울/자살예방프로그램, 죽음준비프로그램,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사회참여지원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지역봉사활동, 교통안전봉사, 동아리·클럽 활동 지원, 교통편의서비스 등
	주거지원	주택수리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배 등) 등
	고용 및 소득지원	노인일자리사업(또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고령자취업지원사업, 경제교육, 취업교육 등
	위기 및 독거노인 지원	취약노인의 신체·정서·사회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과 연계(취약노인연계망구축사업), 사례관리사업
가족	가족기능지원	가정봉사원파견, 방문간호, 노인돌봄서비스사업 등
	가족통합지원	가족상담, 가족관계프로그램, 가족캠프, 세대통합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지역자원개발	자원봉사자 발굴·관리, 후원자 개발, 외부 재정지원기관 사업수탁 등
	지역복지연계	경로당혁신프로그램 등의 지역복지기관 연계, 지역협력사업(경로행사, 나들이 등)
	노인권익증진사업	정책건의, 노인인권 옹호, 노인인식개선사업, 편의시설 설치, 노인소비자피해예방교육 등

출처: 보건복지부(2015b).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Ⅱ)』.

다.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용자가 장애인이라는 제한이 있지만, 다음 <표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수장프로그램들이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높다.
 - 물리치료, 작업치료, 수중운동 프로그램이나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은 노인들에게도 필요한 프로그램들이다.
 -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서비스, 문화여가지원 사업은 거의 모든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다.

표 2-5.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프로그램 종류
상담· 사례관리	사례 발굴 및 개입	
	접수 및 사정	
기능강화 지원	운동·지각향상	물리치료, 작업치료, 다감각촉진활동, 수중운동, 감각통합 활동
	의사소통 향상	언어치료
	학습능력 향상	특수교육
	사회적응력 향상	심리운동, 특수체육, 음악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상담 및 교육	가족지원 전문상담, 정보제공, 가족교육
장애인 가족지원	가족기능강화	가족 휴식지원, 가족조력교실, 중도장애인 가족지원, 가족 역량강화지원(부모역할, 부부관계지원, 비장애형제 지원, 부모모임 지원 등)
	양육지원	가족 돌봄지원, 주·단기보호, 방과후교실, 방학프로그램,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가족단위 문화프로그램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여성장애인 상담실 및 쉼터 운영, 임신·출산·양육·가사보조활동 지원, 결혼 주선 등
	장애인무료급식	결식우려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장애인 식사배달 등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	역량강화 및 지역 사회참여 활동 지원	동료상담, 자조모임 육성, 동아리활동 지원, 주거서비스, 이동지원서비스,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권익옹호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운동, 권리침해 해소, 인권옹호, 법률적인 지원
	정보제공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 지원, 시각장애인 도서(시청각자료 등) 제작·출판·보급·대여, ARS운영, BBS운영
	수화관련	수화교육, 수화통역 봉사원 양성 및 파견, 수화자막 및 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보급·대여 등
직업지원	직업상담 및 평가	직업상담, 직업평가, 구인 및 구직상담
	전환교육	전환교육, 중등/고등직업준비프로그램
	직업적응 및 역량개발 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현장훈련, 취업 후 지도
	사업체 개발 및 관리	사업체 개발, 사업체 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역사회장애인 복지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지역유관기관 장애인복지서비스 자문, 장애인서비스 개발 컨설팅
	지역의 사회통합환경 조성	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 캠페인, 지역사회통합환경 진단 및 계획수립

		프로그램 종류
	주민조직 지원	주민조직체 형성 및 교육, 지역행사 및 정보제공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 지역 위원회활동 등
	지역자원 개발 및 관리	자원봉사자 발굴·교육·활동·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문화여가 지원	문화 및 스포츠 지원	스포츠, 문화여가프로그램, 문화예술인 및 스포츠선수 육성, 체육관 및 수영장 운영
	평생교육	평생교육, 취미활동 지원
	정보접근 지원	정보화교육

출처: 보건복지부(2015d). 『제Ⅲ권 2015년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2. 사례: 복지관 재가복지사업

1.2.1.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 다음 <표 2-6>은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²⁾ 재가복지를 제공하는 지역조직개발팀 사업이다. 밑반찬배달서비스, 목욕서비스, 이동세탁, 이·미용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에서부터 순회진료, 방문재활, 기초약품지원 등 의료 및 건강지원이나 이동복지관 등에 이르기까지 재가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규모는 크지 않다.

- 직접 서비스 제공 이외에 지역사회네트워크나 지역사회조직 등을 통해 자원을 발굴하고 기관 간 연계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2)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개관한 지 3년 정도밖에 안된 신생기관으로 아직 자원봉사자도 많지 않고,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세팅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표 2-6. 2015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사업

구분	사업명	지역사회자원	제공횟수
일상 생활 지원	밀반찬서비스	대한적십자 장수군지회 변암면 회장	매주 1회
	온정(溫情)나눔	음식점 : 장수한우명품관 문구점: MBM장수점, 장수서비스문구 기타 : 장수 홈마트, 장수농협 하나로 마트 북부지점, (유)장수마을	설, 추석, 연말
	목욕서비스	목욕탕 : 창명사우나(1곳)	매월 1회
	이동세탁	업무협력(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센터)	매월
	이·미용서비스	자원봉사자 - 개인: 2명/ 단체: 3곳(이화미용실, 헤어 짱, 에플 헤어샵)	매월
	보장구 수리지원	전주 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	년 2회
	김장김치지원	지역사회 연계(한국여성소비자연합장수군지부 외 2 곳)	년 2회
의료 및 건강 지원	순회 진료	장수군보건의료원, 전북장애인구강진료센터	년 4회
	방문 순회 진료	연계기관(예수병원 재활센터)	년 4회
	기초약품지원	지역사회 연계(의약품 후원)	년 2회
	방문재활	지역사회 기관연계: 장수군보건의료원(물리치료사 지 원)	매주 2회
여가 활동 지원	찾아가는 복지 프로그램	연계기관(장수군보건의료원, 해당지역 면사무소, 장수 군자원봉사종합센터, 전북 노인복지관, 전북 자원봉사 센터)	년 6회
	중증장애인 나들이	-	년 1회
	재가장애인 나들이	-	년 1회
주거 환경 개선	일상생활편의 시설개선사업	-	년 5회
	난방비지원	협력기관: 장수군 7개 읍·면사무소(대상자 추천 등)	년 1회
지역 사회 연계	사회적지지망 연계서비스	자원봉사자 5명	매주 1회
	자원봉사자 간담회	-	년 2회
	후원물품연계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생필품(물티슈) 150개 KB국민은행 보행보조기 3대	연중
	지역사회	장수군보건의료원, 장수군자원봉사종합센터, 전라북도	연중

구분	사업명	지역사회자원	제공횟수
	기관연계	노인복지관, 전라북도자원봉사종합센터, 전라북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천천면분회, 새만금지방환경청	
가족지원	생신 및 외식지원	지역음식점 : 해송식당, 장수순대볶음, 일송정, 봉봉오리나라, 남원식당, 전원식당(총6곳) 제과점 : 스위트베이커리(총 1곳) 문구점 : 현대미니백화점, MBM(총 2곳)	매월 1회
	어버이날	-	5월
조사연구	CBR워크샵	전주대학교 Health EduSTAR 사업단, 예수병원 재활센터, 장수군보건의료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전북지회, 각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단체, 대학교 관련학과 등	9월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역조직화사업	7개 읍·면사무소 및 이장단,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 장수군보건의료원, 장수군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수군지역자활센터, 장수군장애인연합회,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종합센터, 새마을운동장수군지회, 팔공청년회, 페페이·미용봉사단 등	매월 2회
역량강화	자조모임지원(소나무)	장수군보건의료원	매월 1회

자료: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내부 자료(2015.11).

- 밑반찬서비스의 경우, 시각장애인 등 혼자서 음식을 조리하기 어려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하여 제공한다. 복지관 영양사가 만든 식단에 따라 경로식당에서 조리하여 자원봉사자들에 배달되는 방식이다.
 -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주로 고령 장애인이며, 50~60대 중증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
 - 현재 대상자 숫자가 많지 않은데,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에서 음식조리에서 전달까지 하도록 복지관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한다.

- 온정나눔이라는 사업은 지역사회 음식점, 문구점, 마트 등의 후원으로 명절이나 연말에 저소득층에게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 목욕서비스는 경제적, 혹은 주거환경 문제로 인해 집에서 목욕이 어려운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관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대상자를 직접 목욕탕으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지원하고 집으로 모셔다 드린다. 지역사회 목욕탕에서는 목욕비를 후원하는 것이다. 목욕서비스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 이동세탁은 위생관리 차원에서 주로 이불세탁을 제공한다. 장수군에는 세탁차량이 없어서 전라북도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복지센터에서 월1회 차량 지원하고 있다. 세탁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마을을 조사하여 차량을 안내한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복지관에서 직접 수거해서 세탁해서 갖다드리기도 한다.
- 이·미용서비스는 지역사회 편의시설 미비로 미용실 이용의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미용실이나 기술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 의료 및 건강지원 서비스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방문재활은 물리치료사가 가정방문하여 의료상담, 기초건강검진, 운동방법 안내, 마사지 및 재활운동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찾아가는 복지프로그램은 이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거점지역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원예활동, DIY활동, 취미교육 등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사회적지지 연계망서비스는 가까이 사는 이웃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과 1:1 결연을 맺고, 수시로 방문하여 상황을 복지관에 보고한다.

- ※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15년부터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조직화사업으로 **28명의 직원들이 4~5명씩 팀을 이뤄서 장수군 7개 읍·면을 담당하여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시작하였다. 욕구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별로 주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해당 지역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 * 각자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가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기에 현재는 팀별로 담당지역에 월 2회 정도밖에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1.2.2. 고창군노인복지관

- 고창군노인복지관은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고창군노인복지센터, 선운기초푸드뱅크, 고창푸드마켓 등 총 5개 시설이 통합 운영되는 기관이다.
 - 재가노인지원사업의 경우, 고창군노인복지관에서는 급식 지원,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정서지원, 그리고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사업에서 음식이나 식료품을 배달한다.
- 재가복지 담당자 아래에 주민복지조직(군위원, 면장, 담당주사, 이장, 부녀회장, 대한노인회장 등)이 있는 구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 밀반찬배달 사업

- 복지관 내에서 자체 제작한 사전조사표를 통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80여명 노인에게 주1회 자원봉사자 4명이 밀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 복지관 영양사가 구성하는 식단에 따라 경로식당에서 조리하며, 밀반찬 단가는 5,000원 정도이다.
 - 군청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긴급지원 요청할 때 바로 지원하기 위해서 5가구 정도는 여유를 남겨두고 있다.

- 사회복지사가 반찬을 포장해서 전달사항과 함께 내놓으면, 자원봉사자들이 시간 맞춰서 복지관에 와서 각자 맡은 대상자 집으로 배달하게 된다.
 - 본인 차량으로 배달하는 자원봉사자 2명에게는 이동거리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한다. 2명은 복지관 차량을 이용한다.
 - 담당 사회복지사는 매주 자조모임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 악천후 등으로 자원봉사자의 안전이 염려될 때나 대상자의 상황을 살펴할 필요가 감지되면,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반찬을 전달하면서 상담을 진행한다.
 - 조손가정 등 사회복지사의 직접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는 5% 정도이다.

나. 기타 재가복지사업

- 고창군노인복지관에서는 밀반찬배달서비스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명	사업 내용
세탁서비스	필요시 군청에 있는 세탁차량에 연계하거나 지역의 세탁소에 연계
목욕서비스	필요시 군청 소속 목욕 차량에 대상자를 연계
치매예방프로그램	보건소에 있는 치매예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
이동서비스	한 달에 3번 한의원까지 이동 서비스 제공 복지관 셔틀 버스로 45인승 3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거동이 다소 불편한 재가복지서비스 대상노인은 잘 이용하지 못함

다. 지역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지원 사업

- 농어촌희망재단 공모사업으로 2015년도에 진행되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서 지원이 종료된 이후 기관 자체 부담(재가복지사업의 일상 생활지원으로 6백만 원 정도 투입 예정)으로 지속 운영하고 있다.

사업명	곱디고운 할매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대상자	재가복지 대상자 및 치매노인(199명), 65세 이상 경로당 이용자(350명)
사업비	총 28,116,000원(국비 25,000,000원, 자부담 2,566,000원, 후원금 550,000원)
사업기간	2015.08.01.~2015.11.30.(4개월)
사업량	11개 거점에서 총 60회 진행/ 주 2회, 16명 이상(* 경로당활성사업지역 제외)
사업내용	전문 마사지 강사가 마사지 진행하고, 화장해 드리는 프로그램

- 보통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는 달리, 재가노인을 경로당으로 모시고 와서 경로당 이용노인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 자원 연계하여 거점지역 확보 및 비용 절감을 시도하였다.
 - A팀(직접서비스)과 B팀(간접서비스)으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
 - A팀은 마사지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전문 자격증을 소지하고 2년 이상 현장 경험이 있는 봉사활동의 유경험자로 구성하고, B팀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로 복지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있고 본 사업 추진에 있어 복지관과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으로 구성하였다.

거점지역		B팀	특이사항	편의 시설
무장면	대한불교 조계종 마하사	주지 스님	마을 2차선 도로까지 2Km 도보로 이동해야 버스 정류장이 있는 마을로 경로당이 없고 마을에 있는 소규모 사찰이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음	화장실, 세면장, 거실 이용,
대산면	대한노인회 대산 지회	지회장	대산면뿐만 아니라 인근 공음면과 고수면의 경로당 총 60곳을 관리 하고 있는 대산면 지회 하루 평균 점심 식사 인원 평균 30명	화장실, 세면장, 거실 이용, 송영하여 진행
아산면	아산면 사무소	면장	농민회와 이장님들의 복지문화 활성화로 민관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점	회의실 이용, 연락체계 구축
고창읍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사회 복지사	치매 어르신 송영 후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의 보호 아래 진행	목욕탕, 화장실, 현관 도어락, 스타렉스 2대

거점지역		B팀	특이사항	편의 시설
신림면	왕림 개인집	요양 보호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송영 후 진행 (진행시에 송영 자원봉사자 10명 동행)	자원봉사자 개 인차량 10대
고창 관내	경로당	각 마을 이장	거동이 불편한 재가복지 어르신 송영 후 진행	

자료: 고창군노인복지관 내부자료(2015.11).

※ 시사점: 지역주민과의 연계,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의 마을 주민과 융화

- 돌봄이 필요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1:1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는 송영에 대한 부담이 크고,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차량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 주민과 연계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의 대부분은 경로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만 머문다. 지역에서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들을 집밖으로 모시고 나와서 경로당 노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마을 사람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3. 진도노인복지관

- 밀반찬배달서비스는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1억 원 가량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7. 기타 복지관에서 외부 공모 등을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고).
- 진도읍에서 원거리지역이나 섬지역 경로당으로 이동복지관이 들어갈 때 세탁 차량이 함께 방문한다.
 - 1회 방문 시 약 3~4가구 정도 세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세탁물이나 경로당에 비치된 이불 등을 서비스 대상으로 한다.

- 세탁에서 건조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이 동행하고 있다.
 - 초기에는 자질구레한 세탁물까지 다 가지고 나왔으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탁물이 섞이는 일도 생기고 해서 현재는 이불만 세탁하는 것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해졌다고 한다.
- 이동복지관은 문화예술프로그램, 보건서비스, 위생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역자원 강좌 및 노래, 무용, 영화, 난타 등 공연
 - 보건서비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동행하여 건강지원 및 의약품 지원
 - 위생서비스: 위생교육, 세탁서비스 제공
- 진도군의 경우, 복지관에서는 섬지역을 대상으로 세탁차를 월 평균 10회 정도 운영하고, 군청에서도 주 1회 면지역을 지원한다.

 - 복지관에서는 영화 등 문화예술프로그램과 물리치료사가 동행하는 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세탁차량이 함께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청에서는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세탁 차량을 운영한다.
 - 세탁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 거점지역에 분관형 복지관을 시작하였다. 아직 상주하는 직원은 없고, 주1회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임회면노인복지회관: 매주(수) 09:00 건강체조/ 10:00 노래교실
 - 고군면노인복지회관: 매주(금) 13:00 한글교실/ 14:00 노래교실/ 15:00 라인댄스

1.2.4. 의성군노인복지관

- 의성군노인복지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재가복지사업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시락배달서비스: 매주 월~금, 주 5회, 대상자 10명

- 의성군 내에서 복지관 이외에 시니어클럽(유급봉사)에서도 도시락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도시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에 대상자가 밀집되어 있지만, 농촌지역은 넓은 면적에 흩어져 있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전달하려면 시간 및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 어려움이 있다. 봉사자들도 각 가정마다 방문하여 도시락을 전달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실정이다.
 - 때문에 직원들이 매일같이 1시간씩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다.
- ② 밀반찬 서비스: 주 1회, 대상자 200~300가구
-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모사업을 통하여 예산을 지원 받아 진행하고 있다.
 - 전담 관리자가 있으며, 각 읍면에 있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가정방문 시 밀반찬을 갖고 가서 전달한다.
 - 1~2월에는 국도 함께 배달한다.
- ③ 세탁서비스: 기관으로 세탁물을 가져오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 제공
- 복지관 지하에 드럼세탁기 2대, 일반세탁기 2대가 비치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이용 가능하다.
 - 인력이 부족하여 기관에서 직접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④ 목욕서비스: 월 1회, 장기요양등급 등급외자
- 직원들이 목욕탕에 대상자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 수요 및 만족도는 굉장히 높지만, 목욕탕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자와 대상자의 1대 1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봉사자의 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다.
 -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직원이 져야 하는 문제가 있다.
- 그밖에 치매진단 및 예방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병원동행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포함된 부분이고, 최근 재가복지서비스 축소와 함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 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지역사회 자원이 연계·협력해야 수행 가능하다.

- 복지관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여 연계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1. 농촌지역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및 서비스 내용

○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읍·면지역 소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재가지원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은 118개이다(조미형 외, 2013).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992년 정부가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2009년 농어촌재가복지시설을 신축·기능보강 지원하였으며, 2008년부터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을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일하고, 서비스 종류(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010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신설하였다.

표 2-7. 읍면지역 소재 재가지원서비스 수행 기관 수

(단위: 개소)

부산	대구	인천	세종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합계
1	1	1	1	10	18	13	14	15	26	15	2	1	118

자료: 보건복지부(2013). 『2013 노인복지시설 현황』 (2012.12.31. 기준).

-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지만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거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 2015a).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의하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고).
 - 예방적사업(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
 - 사회안전망구축사업(간접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
 - 긴급지원사업(긴급서비스): 긴급지원

2.2. 사례: 의성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의성노인복지센터에서 총 50세대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의 내용, 제공횟수 및 대상자 규모, 비용 등을 살펴보면 다음 <표 2-8>과 같다.
 - 연간 예산 8,000만 원(균비 5,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15개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1,122만 원이다.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0%에 그친다.
 -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식자재·물품 등 재료 구입이나 차량 운행, 홍보 및 교육 등에 비용이 투입된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원되는 인력은 자원봉사나 지역사회 자원 연계로 해결하고 있다.

표 2-8. 2015년 의성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수행사업

구분	사업명	내용	제공횟수	예산(원)
일상 생활 지원 서비스	도시락 배달	점심도시락 지원(월~금) (단가 3,000원) 자원봉사자 주3회 이상 활용 노인복지관과 연계하여 도시락 조리	주5일/ 5명	3,600,000
	밑반찬 지원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밑반찬을 조리하여 배달(단 가 8,000원)	월1회 /20명	1,920,000
	세탁	세탁물을 방문·수거 및 배달 (노인복지관 세탁실 이용)	월 10가구	40,000 (세제값)
	목욕	인근 목욕시설에 모시고 가서 목욕 지원 및 점심식사 제공 자원봉사자 1명 직원과 동행(1명이 노인 3명 지원) (입욕비 5,000원+점심식사비 5,000원, 목욕용품 구 입비 총 40,000원)	월 1회/5명	840,000
	명절 지원	독거 재가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명절 물품 지원 및 정서 지원(물품 단가 10,000원)	설, 추석 /50명	1,000,000
정서 지원 서비스	어버이 날행사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꽃값 3,000원)	어버이날 /50명	150,000
	외식 사업	외식업체 방문하여 식사 제공(단가 15,000원) (1회와 2회의 서비스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음)	연2회 /회당 10명	300,000
여가 활동 지원	두드림 한마당	거동이 가능한 대상자 30명과 직원·자원봉사자 10 명 동행하여 문화체험지 나들이(차량비 200,000원, 간식비 3,000원, 프로그램운영비 280,000원)	연1회/ 30명	600,000
주거 환경 개선		도배 및 장판 교체	연1회 /1명	250,000
상담 지원		방문상담 및 전화 상담(월1회 이상) 사례회의(반기 1회)	수시	100,000
지역 사회 자원 개발	자원 봉사자 관리	자원봉사자간담회 1회(100,000원) 봉사자보수교육 1회(150,000원) 활동지원 2회(100,000원)	연1회	350,000
	후원 사업	후원자 발굴 재단결연후원 1명(월 50,000원, 600,000원) 김장용품구입(100,000원) 소식지 발송(10,000원)	연중	710,000

구분	사업명	내용	제공횟수	예산(원)
	홍보사업	소식지 제작 및 발송	연중	640,000
건강증진사업	방문 물리치료	의성군노인복지관 물리치료사가 방문하여 공기압 치료, 혈압체크, 찜질마사지 등 수행 (회당 비용 2,000원)	월1회/ 5명	120,000
사회안전망구축사업	생활 안전 교육 지원	심리적 안정감 유지 및 자살예방, 응급상황 대처 등 생활교육 실시	연1회 /10명	
긴급지원서비스	긴급구호물품 지원(단가 200,000원)		3명	600,000
합계				11,220,000

자료: 의성군노인복지센터 2015년도 사업계획서

- 예산 및 수행 인력의 한계로 인해 어버이날행사, 명절지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업이 5~10명 정도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대상자는 군청에서 명단을 내려주고 있으며, 센터에서 발굴한 경우에도 군청에 보고하고 서비스 제공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재가노인 중에서 서비스 사각지대가 많으나,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다.

3.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3.1. 사업개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에서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지역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이다.
 -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5.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 ① 목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증진
- ②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 ③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
- ④ 제공인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노인맞춤형운동 처방서비스에 적합한 인력
 - 운동서비스: 생활체육지도사, 체육학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
 -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영양사, 초등정교사, 보건교육사, 간호사
- ⑤ 서비스 가격: 수중운동 위주 서비스 - 월 12만원 내외(정부 10.8만원, 본인 1.2만원)
기타 제조, 에어로빅 등 중심-월 7만원 내외(정부 6만원, 본인 1만원)
- ⑥ 서비스 제공기간: 12개월
- ⑦ 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횟수
기본 서비스	1. 건강상태 점검(분기 1회) - <u>건강상담</u>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u>수중운동</u>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 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u>유산소운동</u> : 체조와 볼, 밴드를 이용하거나 댄스, 무용, 에어로빅 등을 통해 근력·근지구력의 발달, 유연성 증진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3회 (회당 90분)

- ⑧ 서비스 제공절차: 등록, 상담, 욕구판정 → 측정 -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통증치 검사 분석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 사후관리(종료시 신체기능 검사 의무 실시, DB를 구축하여 지속적 관리)
- ⑨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인당 25명 이내의 이용자 이용 가능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0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2. 사례 조사: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맞춤형 운동 서비스

□ 사업 내용

- 마루운동과 수중운동,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며, 마루운동은 다른 건강체조교실과 별 차이가 없다.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분기별 인바디 검사 실시, 운동 전후의 변화를 비교 분석해서 제공하는 정도이고, 개별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맞춤형 운동 서비스라고 해서, 처음에는 “개인별로 맞춤형인가?” 하고 생각했어요. 누구는 어깨가 아프고, 누구는 허리가 아프고, 누구는 심장이 안 좋아서 뛰는 건 안 되는데 가서 수업을 해보니까 90분 수업에 앞뒤 준비시간이 30분이라 실제로는 60분 수업이에요. 그걸 한 개 반에 30명이 했는데, 30명을 도저히 일일이 맞춤형으로 지도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체조랑 사실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용한 강사 선생님들이 보건소와도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김제에 있는 자원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웬만한 수준의 강사가 아니면 어르신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더 그렇죠. 또 맞춤형 운동 서비스라고는 되어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들에서 건강을 좀 더 체크해주는 그런 부분이 플러스 된 것이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도 하고요. 때문에 사실은 맞춤형이라는 명칭 자체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 그래도 내년에 요청할 생각입니다.

- 마루운동은 한 마을에 15명 정도가 참여하며, 최대 25명 이하로 운영한다. 시간 강사를 고용해서 1시간 30분씩 한 달에 8회 정도, 1년 간 서비스 제공하는데, 마을 경로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마루운동의 경우 처음 1년째에는 교회 한 기관하고 장소 쓰는 걸로 협약을 해서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진행을 했었지만 지금은 생활시설이나, 마을별로 경로당에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중운동은 수영장을 빌려서 진행합니다.

- 수중운동은 아쿠아로빅으로 최대 25명이 참여하는 클래스를 3개 운영하고

있다. 전담강사를 채용해서 2개 반, 다른 지역에서 시간강사를 고용해서 1개 반 등. 수영장 임대.

- 이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영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참여자가 더 많다고 한다.

대부분 물속에서 걷거나 물속에서 체조를 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 대기자가 많아요. 수중운동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한 달 이용권을 끊어드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2만 5천원 내야 한 달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 이용권을 끊어드리면 1년 동안이지만 한 달 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수영장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보니 수중운동은 홍보를 따로 안 해도 어르신들이 잘 참여하시는 편이라 사업비가 모자라서 한 달 동안 대기상태인 분이 생기기도 했어요.

□ 사업 참여자

- 서비스 신청 가능 대상은 65세 이상, 차상위 120%이하 노인으로 사업주체가 직접 홍보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저소득층이라면 다른 서류 없이 신청서만 있으면 가능하고, 소득수준은 대부분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면 거의 대부분 해당 된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대상자는 시청 같은 곳에서 걸러주는 건 아니고, 저희 쪽에서 직접 마을 홍보를 해서 모집합니다.

- 수중운동 참여자는 마루운동 참여자에 비해 소득수준도 낮고, 활동적이고 젊었을 때 사회활동을 했던 노인들이 많다고 한다. 마루운동 참여자 중에서 관절이 안 좋은 분들에게 권하지만, 대부분 참여하지 않는다.

수중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마루운동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소비수준도 그렇고 생각이 좀 깨어있으시고 활동적이신 분들, 젊었을 때 어느 정도 사회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주로 참가를 하십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이 물에 부력이 있으니까 관절에 하중이 덜 가서 어르신들에게 좋기 때문에 마루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수중운동을 권하는 편이에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루운동 할 때도 무릎이 안 좋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따라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권해드려도 물이 싫어서하기 싫고, 물이 차갑다고 추워서 싫어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 서비스 이용료

-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건강체조교실과 달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는 수급자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마을별로 운영되는 마루운동은 서비스 총 비용 6만 원 중에서 개인별 부담액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여자 수에 따라 개인별로 부담하지 않고, 마을 단위로 걷고 있다.
 - 사실상 이 서비스는 경로당 이용노인 중에서 수급자나 차상위 120% 이하인 노인만 참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마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소득수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별하기는 어렵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처음에 어르신들이 "보건소나 이런 곳에서는 운동을 공짜로 하는데 왜 너희는 5천원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서비스 참가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첫 해에는 1년에 2번씩 야유회를 갖어요. 그러면서 "야유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부터는 야유회가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최소한 25명은 차야 야유회 비용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마을은 10~15명만 참가하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운동을 꾸준히 1년간 걱정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들어서 어르신들을 설득시키고 있어요.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계속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또 생겼는데 그것은 5000원을 어떻게 받느냐 라는 거였죠.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있으신데 거기서 돈 안내신 어르신들께만 "어르신, (돈 안냈으니까) 나가셔야 해요." 라고는 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내든 못 내든 같이 프로그램을 받으시게 되요. 그러면 또 나중에 누구는 돈 냈고, 누구는 돈 안냈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서 알아서 회비를 걷든 어떻게 하든 받도록 하셔서 15명이면 7만 5천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마을단위로 돈을 걷어요.

□ 노인건강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해 보고 싶은 사업

- 헬스트레이너를 고용한 실버전용 헬스장은 현실적으로 초기 예산 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다.
- 기존 시설이나 운동기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운동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마을을 방문하여 기구 사용법을 가르쳐 주고, 개인에게 적합한 운동법을 지도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는 마을단위로 노인건강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이를테면 마을마다 약간 큰 노인정에 가면 대부분 운동기구가 있지만 사실상 잘 활용을 안 하세요. 그러니 헬스트레이너가 상주하는 건 힘들더라도, 운동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찾아가서 어르신들에게 운동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리 아프신 분들은 이런 운동 하면 좋습니다, 어깨 아프신 분들은 이런 운동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도 해 주는 것만으로도 운동 기구 이용 횟수도 늘고 어르신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운동 기구를 갖춰놓을 만한 기반도 없고, 있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고장 나면 고장 난 대로 놔둬버리고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에 다 할 필요는 없고 한 개 면에 한 개씩 거점을 잡아서 19개를 운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따로 홍보 같은 걸 안 해도 어르신들이 알아서 입소문을 퍼트리시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좀 있어도 어르신들이 이장님한테 거기까지 태워다 달라고 하세요. 이장님들이 해주셔야 할 역할이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4. 심부름센터

4.1. 장애인심부름센터³⁾

-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사업내용은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보조, 직장 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조 및 병원 이용보조 등 각종 이동서비스 및 안내 보조하는 것이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센터의 경우, 센터장 1인, 사무원 1인, 배차원 1인 및 운전원 3인을 포함한 6인을 원칙으로 하되, 1개소당 6인을 2개소로 분리 운영(3인)도 가능하며 자체수입으로 증원할 수 있다.
- 재가장애인을 방문, 상담, 의료·교육 재활, 직업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4.2. 유사 사례: 전라북도 사회복지심부름센터사업

4.2.1. 사업 개요

- 전라북도 사회복지심부름센터사업은 2011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시작되었다.
 - 시·군청에서 시·군사회복지협의회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보건복지부(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pp.81-84.

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수행 업무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등이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 민간 자원의 연계·협력·조정 역할 이외에 직접 사업 수행에도 참여하고 있다.

- 전라북도 내 9개소가 있으며, 개소당 3명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연간 6천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 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심부름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량	9개소 운영(전주(2), 익산, 정읍, 김제, 진안, 무주, 임실, 순창)
사업비	540,000천원(도비 126, 시·군비 414), 개소당 60,000천원 - 인건비: 388,800천원(1인당 월 1,200천원) - 운영비: 151,200천원(개소당 월 1,400천원)
지원대상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수급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지원내용	각종 민원신청 택배, 시장보기, 긴급 상황 시 방문도움, 간단한 일상생활지원(전구 갈아끼워주기 등) 등 도민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이륜차 운행) -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사업수행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수행인력	개소당 3명: 사무원 1인(심부름 접수 등), 심부름수행원 2인

자료: 전라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 내부자료(2015.9).

-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총 9,763건의 심부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구체적인 심부름 내용은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전라북도 사회복지심부름센터 사업 현황

계	시장 보기	민원 업무	가전 수리	병원 약국	물품 배달	전화 상담	위기가정 발굴	기 타
9,763	1,708	319	594	1,289	2,120	1,406	125	2,202

주: 기타는 청소, 은행업무, 공과금납부, 도시락 전달, 도서대출, 타 기관·단체연계, 이·미용봉사 등이 포함됨.

자료: 전라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 내부자료(2015.9)(2015년 6월말 기준).

4.2.2.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심부름센터

- 김제시 사회복지심부름센터는 18개 읍·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륜차 운행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 받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 심부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다. 일례로 예전처럼 우편업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통장 확인 등 금융관련 업무는 민감한 부분이라 지원하기가 어렵다.
 - 초기 생각과는 달리 현재는 전기제품 고장났을 때 AS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고, 간단한 민원서류 대신 제출하고, 리모컨 건전지 교체, 형광등 갈아끼우기 등을 하고 있다.
 - 차량 지원의 경우, 필요한 사람들이 골고루 이용하지 못하고, 일부 주민이 주 3~4회 이상 집중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재는 이용자격을 거동불편 장애인이나 노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 좋은 이웃, 후원 물품 전달 등 협회에서 하는 다른 사업으로 가정방문을 할 때 불편한 점들을 접수해서 지원하고 있다.
- 서비스 수요가 많아서 홍보를 하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서비스 제공 실적이 4,000여건(하루 10건 정도)에 이르렀다.
 - 시장보기 등 이동 지원을 할 때는 마을별로 해당 시간에 이용할 사람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장애인심부름센터와 내용 측면에서 중복되기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서비스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되지 않고 노인 등 필요한 주민으로 하고 있다.

-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한정되어 있고, 한 달에 2회 이상 사용하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중에서 독거노인생활관리사의 활동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5. 자원봉사센터

5.1. 농촌지역 자원봉사센터 현황

-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 중앙센터 1개소를 포함하여 총 246개소가 운영되고 있다(2015년 11월 18일 기준). 중앙센터를 비롯하여 광역 시·도, 시·군·구마다 설치되어 있다. 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기도 한다.

표 2-10. 전국 자원봉사센터 현황

(단위: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6	17	9	11	6	6	6	32	19	12	17	15	23	24	19	3	245

자료: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홈페이지(2015.11.18. 조회).

5.2. 사례: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농가먹기운동⁵⁾

5.2.1. 농가먹기운동 개요

- 농가먹기운동은 자원봉사센터가 중심이 되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조직화하여 ‘지역사회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2011년 전국자원봉사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 농가먹기운동의 수혜자(대상자)는 2015년 12월 현재 총 260여 가구에 이른다.
 - 이를 관리·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 인력은 소장(총괄)과 직원(담당자) 등 2명이 본인의 센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 30여개 봉사단체에서 500여 명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반찬을 제공하는 식당이 25개이다.
 - ‘농가먹기터’라는 공간⁶⁾에서 봉사자들의 모임이나 간식만들기 활동을 하고, 밑반찬 만들기과 명절 음식 만들기를 할 수 있는 주방시설도 갖추고 있다.
- 농가먹기운동은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단체 - 주민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센터에서 봉사단체대표에 연락하면, 봉사단체 회원에게 전달되고, 봉사자가 담당하는 주민에게 전달되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 260가구에 물품을 배포하는데 봉사단체 30여 곳에 전화 한통씩만 넣으면 센터의 역할을 끝난다.

5) ‘농가먹기’란 “나누어 먹다”의 강릉사투리로써 콩반죽도 나누어 먹는 우리나라 전통의 나눔정신이 반영된 말이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 소장은 농가먹기 ‘사업’이 아니라, ‘운동’임을 강조하였다.

6) 초기엔 시청에 협조를 구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로당을 직접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였으나,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재개발되면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 때 자원봉사단체에서 건설업체에 부당함을 주장하여 건설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현재 자원봉사센터 옆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였다.

- 농가먹기터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포장해 두면, 봉사단체에서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가서 단체별로 봉사자들이 어르신에게 전달하거나 식당에서 밑반찬을 포장해 두면 봉사자가 식당에 직접 가서 가져다 전달한다.
 - 지역으로 배달이 어려운 노인봉사자들을 위해서는 센터에서 해당 지역(경로당 등)까지 배송한다.
- 대상자는 지역에서 봉사자들이 직접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청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이 의뢰하거나 개인이 직접 의뢰하기도 한다.
-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복지 사각지대 노인이 발견되거나, 밑반찬이 필요한 주민이 직접 신청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으로 선정한다.
- 자원봉사자는 지역별 봉사단체, 기업봉사자, 개인 봉사자, 청소년 봉사단체 등으로 구분된다(표 2-11).

표 2-11. 농가먹기운동 참여 봉사단체 현황

	내용	참여단체
지역별 봉사단체	지역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바르게살기운동 강릉시협의회(11개 읍·면·동지회 참여) -옥천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정면 의용소방대봉사단
기업 봉사자 ⁷⁾	영업직이나 시간대별로 근무하는 조직이 참여	-하이트진로 참이슬봉사단 -우편집중국 파랑새봉사단 -한국남동발전(주)영동화력발전처 봉사단 -한국전력 강릉지사 봉사단 -기아자동차 강릉서비스센터 -SCU 강릉지사 봉사단
개인 봉사자	관심 있는 개인	면담 후 봉사자가 거주하는 마을단위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봉사단체	다년간 기수별로 지속적인 활동 가능	-강릉 강일여고 RCY봉사단

자료: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2015.12).

5.2.2. 농가먹기운동의 활동 내용

- 농가먹기운동은 반찬 배달사업이 아니라, 밑반찬을 매개로 하여 지역사회 돌봄을 실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 농가먹기운동은 주1회 밑반찬 전달 및 돌봄 활동, 밑반찬 만들기 활동, 물품 후원이나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 간식만들기 등의 활동들로 운영된다(표 2-12).

표 2-12. 농가먹기운동 활동내용별 자원봉사단체·봉사자 현황

	참여 현황	
	자원봉사단체 수(개)	자원봉사자 수(명)
밑반찬 전달 및 돌봄 활동(주1회)	29	500
밑반찬 만들기 활동	8	50
반찬제공 식당(2~5개/식당)	28	-
각종 기부활동	3	-
각종 간식 만들기 활동 진행	5	30

자료: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2015.12).

- 농가먹기운동의 세부 프로그램은 반찬 농가먹기, 김치 농가먹기, 간식 농가먹기 등으로 나누는 물품이나 음식명이 앞에 붙는다.
 - 김장의 경우, 올해 배추 5,000포기를 후원받아서 자원봉사자들의 노력봉사만으로 별도의 비용 투입 없이 김치를 담가서 900가구에 배포한다.
 - * 김장을 하는데 있어서 배추 등 김치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김치 담그고, 포장하고, 대상자에게 나눠주는 것까지 전 과정을 자원봉사자에 의해 진행된다. 박스 포장된 김치는 지역별 봉사단체 및 봉사자들이 직접 가지고 대상자 집으로 배달한다.

- 7) 우체국이나 남동발전(주) 직원들은 3교대 근무하므로 3시 퇴근하는 직원들이 반찬 전달에 참여한다. 기아자동차 영업직원들은 가정방문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부 직원은 6가구까지 담당하고 있다.

① 주1회 밑반찬 전달 & 돌봄 활동

- 주요활동은 지역별로 지역소재 식당에서 준비된 밑반찬을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정기적인 가정방문이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 반찬 배달을 넘어서 독거노인의 안부 확인과 정서지원 봉사활동을 함께 한다.
 - 이 과정에서 독거노인의 추가 욕구(예: 싱크대가 고장나서 물이 새고 있다,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고 있다 등)가 발견되면 자원봉사센터에 보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 예를 들어, 남동발전(주) 봉사단의 경우, 사내 식당에서 조리하여 직원들이 인근 지역 어르신에게 전달한다. 강일여고 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조리한 반찬을 학교 인근 어르신에서 전달한다.
 - 일부 봉사자들은 필요한 물품을 직접 사거나 구해서 전달하기도 한다.

② 밑반찬 지원 식당 발굴

- 지역별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발굴할 수 있도록 한다.
 - ‘남는 반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하여 지원하는 나눔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 식당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2~5가구 정도만 지원하도록 하며, 어르신 취향의 반찬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유한다.
 - 평소에 먹기 힘든 특별식을 지원받기 위해 일식집, 감자탕, 부대찌개 등 전문식당도 발굴한다.
 - 발굴된 지원식당 수가 50여개에 이른 적도 있지만, 현재는 28개이다.

③ 밑반찬 만들기 활동

- 절반 정도는 식당에서 밑반찬을 지원받고, 절반 정도는 식자재를 후원 받아서 봉사자들이 농가먹기터에 모여서 직접 반찬을 만들고 포장한다.

④ 명절 등 기념일 챙기기 활동

- 설날, 추석, 말복 등 명절에 특히 소외되는 독거노인을 위하여 각종 음식

및 후원물품을 제공한다.

- 설날: 만두 및 국거리, 전 / · 추석: 송편, 전, 햅쌀 4kg
- 말복: 삼계탕 개인당 1마리 / · 어버이날: 카네이션 및 각종 생활용품
- 농가먹기터에 모여서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장만하고, 포장하면, 지역별 봉사단체에서 나눠준다.
- 전은 힘들 때는 만들지 못하고, 어버이날 생활용품도 후원 들어온 수량에 따라 전원 드리지 못한다.
- 전과 송편, 햅쌀까지 함께 갖다 드렸더니, 제공된 음식으로 그동안 못했던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그림 2-1. 농가먹기운동 터



그림 2-2. 농가먹기운동 활동 사진



⑤ 농가먹기운동 엠블렘 제작

- 디자인 전문 사회적기업의 재능기부로 무료제작
- 농가먹기운동 참여식당, 참여 봉사단체 사무실에 부착하여 활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3. 농가먹기운동 엠블렘



5.2.3. 농가먹기운동의 특징

- 농가먹기운동은 2011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 이미 마을 단위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었다.
 - 사업 총괄책임자는 2007년 성덕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중심 운동으로, 독거노인 16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의 식당을 발굴하여 반찬을 배달하

는 활동을 2년 동안 했었다.

- 봉사자들이 식당을 직접 발굴하고, 일부는 직접 반찬을 만들기도 하였다. 이후 2011년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들과 함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농가먹기운동이 시작되었다.

- 농가먹기운동의 특징은 공적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자원 동원으로 운영된다.
 - 자원봉사단체 이외에도 <표 2-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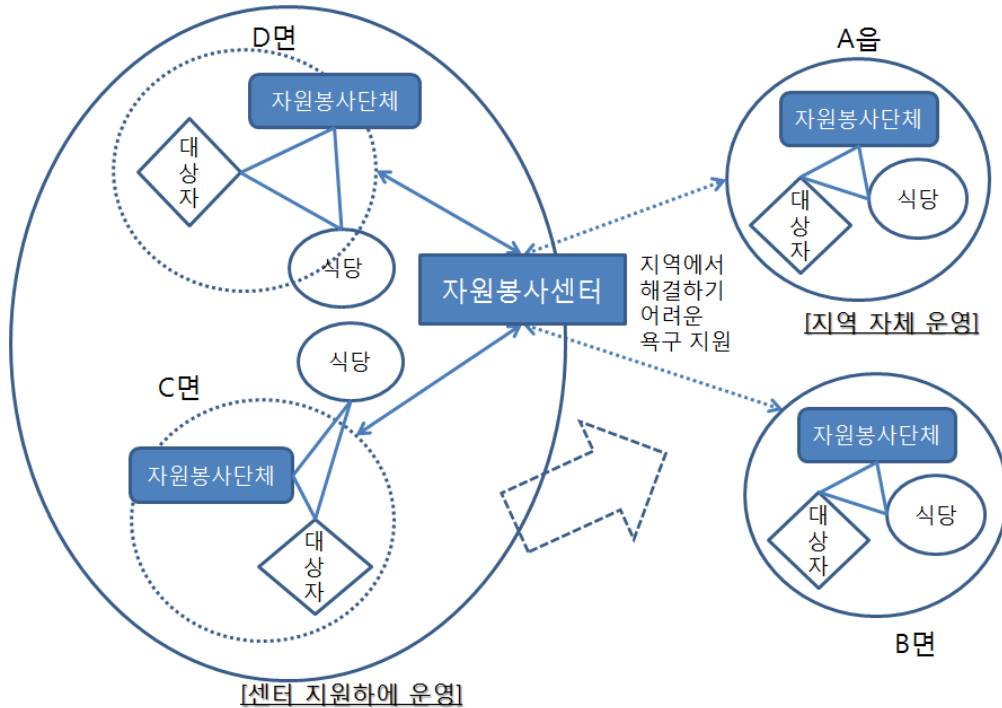
표 2-13. 농가먹기운동 연계기관 및 단체

	연계기관/단체	연계/활용내용
1	시청(희망복지지원단 포함)	- 사업지원 · 예산지원 · 수혜대상자 선정 · 기타 협의를 통한 각종 지원
2	보건소	- 방문보건서비스 사업수행 시 농가먹기운동 대상자 발굴 -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3	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농가먹기운동을 마을공동체 운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 및 이론적 배경 개발
4	사회적기업	- 후원을 통한 운동의 확산 · 디자인(엠블렘 제작 등): 자작나무 · 각종 농산물지원: 농업회사법인 들살림, 영농조합법인 송정농장
5	대한노인회	- 노인자원봉사단에서 밀반찬 제작 봉사활동 - 경로당에서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활동
6	지역자활지원센터	- 서비스 제공 · 자활공동체 찬들식탁에서 밀반찬 제공 · 자활공동체 사랑의 빨래방에서 세탁서비스 제공
7	지역기업체	- 식자재 및 간식 지원 · 기아자동차 서비스 강릉센터 농협마트를 통한 식자재지원 · CU(구 훼밀리마트) 간식지원 · 간식만들기 프로그램 참가

자료: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2015.12).

-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지역(A읍, B면 등)에서는 봉사단체에서 식당을 발굴하고, 대상자에게 배달하는 것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는다.
- 배후지역 마을은 발굴할 식당이 없어서 지역 안에서 반찬 확보가 어려운 지역(C면, D면 등)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반찬을 지원하여 지역별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 궁극적으로는 <그림 2-4>의 A읍이나 B면과 같은 형태로 지역의 전달체계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협업을 기획하고 있었다.

그림 2-4. 농가먹기운동 전달체계



5.2.4. 시사점

- 농가먹기운동은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눠 먹기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
- 첫째, 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무엇보다도 거점 기관(담당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단체가 센터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구축·운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궁무진하다.
 -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단체나 봉사자는 센터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 센터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하였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신뢰’가 생긴 것이다.
 - 이는 곧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둘째, ‘**자율성과 유연성**’ 등 민간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한 운영이다.
 - 농가먹기운동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
 - 우선, 대상자 선정에 있어 경직되어 있지 않다. 지역에서 보기에 노인에게 반찬 배달이 필요하다 싶으면, 자식이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상관없이 가져다준다.
 - 지역 주민에게서 욕구가 발견되면 민간 자원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예산 확보 등의 행정적인 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 공공에서 소득이나 건강수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수급자격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돌봄의 사각지대를 민간의 유연한 운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행정력으로는 지역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부족한 비용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받거나, 후원을 받는다. 즉 주도권을 관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다.

- 셋째, **예산 없이** 할 수 있다. 정부가 사업으로 이 정도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 대상자를 발굴해도 연계할 자원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투입된다.
 - 농가먹기운동에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고, 발굴한 자원들을 네트워킹하고, 분류해서 이들에게 적당한 역할을 준다. 여기엔 비용이 들지 않는다(물론, 센터에서 이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보장되어야 한다).
 - 일례로 겨울철 보일러 수리가 필요한 가정 조사를 해야 할 경우, 봉사자들에게 파악 요청하면 된다. 보일러 수리 가능한 봉사자만 100명 정도 되니까 재료비만 지원하면 된다. 시청에서 1,000만원 예산 지원하면 30~40가구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다.

- 넷째, 운동의 취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네트워크의 참여와 탈퇴가 자유롭다. 사업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일부 단체에서는 참여하는 목적이 농가먹기운동과 부합하지 않아서 탈퇴하기도 하였다. 반찬을 지원하는 식당 중에서도 1회 분량이 지나치게 적어서 주의를 주고, 시정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였다.
 - 운동에 참여하는 식당을 발굴할 때에도 사업 총괄자가 필요한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주인에게 농가먹기운동의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참여의지를 확인한 후 지원받는다.

- 다섯째, 농가먹기운동 네트워크는 1차 지원체계로서 마을 단위에서 돌봄을 행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관계가 아니라 지역에서 스스로 돌보는 체계인 것이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나 좋은 이웃, 희망지원단 등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는 농가먹기운동 전달체계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돌봄사업으로 사각지대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좋은 이웃’(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이나 독거노인을 돌보기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끝나는 ‘사업’인 것이다.

- 여섯째, 자원봉사활동을 밀반찬 배달 등 인력 지원 측면에서 활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에서 보람을 느끼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 그 일환으로 청소년 봉사단체나 기업이나 개인 봉사자의 경우 간식을 직접 만들어서 배달하고 있다.
 - 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를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계할 때에도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시설에 가서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를 맞을 준비가 안 된 기관에 봉사자를 보내면, 청소나 마당 풀 뽑기 등을 시키곤 하는데, 이런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기 어렵다.
 -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센터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 네트워크 구축의 첫 단추가 채워지는 것이다.
- 일곱 번째,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지역의 자원을 묶어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자원봉사센터는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아쉬운 점1: 민간의 네트워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관리 대상 노인이 250~300가구 이상 규모가 되면, 민·관 거버넌스 체계가 작동해야 네트워크가 유지될 수 있다.
 - 민·관이 동등하게, 혹은 민이 주도하고 관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봉사

단체들의 신뢰가 높기 때문에 관이 함부로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

- 이러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 아쉬운 점2: 다른 사회복지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부족하다.

- 이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와 네트워킹해서 복지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경우에도 자살예방(재가노인의 우울증 문제 개입)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교육하고, 문제가 발견되는 어르신을 발굴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안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6. 푸드뱅크/푸드마켓

6.1. 농촌지역 푸드뱅크/푸드마켓 현황

- 푸드뱅크는 전국푸드뱅크, 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켓, 이동푸드마켓 등이 있다.
 - 기초푸드뱅크 및 기초푸드마켓은 지역내 식품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를 통한 기부식품 모집·관리·배분·지역 내 기부식품 이용자 발굴·선정 등을 하고 있다.
 - 이동푸드마켓은 지역적인 이유로 식품 등의 제공서비스가 부족한 복지소외계층에게 식품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읍·면·동의 거점에서 기부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 푸드뱅크/푸드마켓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 전국푸드뱅크 1개소, 광역푸드뱅크 17개소, 기초푸드뱅크 271개소, 기초푸드마켓 128개소 등 총 417개소 설치·운영하고 있다('13년 12월 기준).

- '12년 농산어촌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이동푸드마켓 설치·운영
- '13년 농산어촌 복지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이동푸드마켓 확대·운영(29개소)

6.2. 사례: 선운사기초푸드뱅크 & 고창군푸드마켓

- 고창군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자인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각 면단위마다 3명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푸드뱅크 사업은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대상으로 배분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주민조직이 함께 한다.
 - 푸드뱅크 대상자가 500명 정도, 독거노인생활관리사 1명 당 8~23명까지 배정하여 음식 배달, 경찰서에서도 순찰하면서 배달하기도 한다.
 - 푸드뱅크로 물품이 들어오면, 지역주민조직의 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물품을 마을까지 배송 부탁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에게 가정방문시 전달을 요청한다.
- 푸드뱅크에서 고창군 전체 570여 개 경로당 중에서 고창읍과 인접한 고수면을 제외한 지역의 230개 경로당에 음식을 제공한다.

저희(푸드뱅크 담당자)도 물품 배분을 빨리 해야 된다거나 뭐 좋은 물품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장수등뼈가 왔다고 하면, 빨리 배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독거노인관리사분들한테, 회장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니까 하위레벨의 그 회장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러면 저는 그 회장님한테 “몇 시까지 용달차가 어디에 도착을 하니까 복지관마당으로 오세요.” 하면 이 분이 짹 퍼뜨려가지고 모여서 배분 받아가는 그런 구조거든요.

저희(푸드뱅크 담당자)가 이장님들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주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려요. “주사님 오늘 5시에 면사무소 마당이요.” 하면 “네, 뭐예요?”, “음료수요” 하면 통화가 끝나요. 그러면 4시 반에 모집 좀 해주세요. 그러면 경운기, 오토바이, 트랙터, 다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경로당으로 나가는데, 직접 배분하는 장소에서 중심이 되는 마을의 이장님께 말씀을 “이장님, 김○○ 할머니 꾸러미요. 이거는 인수증 받아 오셔야 해요.” 이제 그 교육이 되셨어요.

- 현재 이동 푸드마켓 이용자가 500여 명이고,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230명 정도이다. 2014년도 한 해 동안 총 3,000명에게 약 7억 원 정도의 후원물품을 배분하였다. 푸드마켓에는 전담인력이 2명 근무하고,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2명 등 보조인력 5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 이동 푸드마켓에서는 월 1회, 2만 원으로 기준을 책정하여 필요한 식료품을 꾸러미로 배달한다. 하지만, 노인의 상황에 따라 3~5만 원까지도 지원된다. 추가 비용은 복지관의 재가복지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
 - 매월 방문 시 찬장이나 쌀독, 냉장고 등을 열어 보고, 필요한 물품을 체크하고, 건강상태도 확인하여 유동식 등이 필요하다 싶으면 수프나 국수 등을 꾸러미 목록에 기입하였다가 다음 달 방문 시 챙겨서 배달한다.

(이동 푸드마켓은) 물건을 사는 개념보다는 어르신이 미리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할 때 이제 찬장도 한 번씩 열어보거든요. 여자선생님들이라…….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할머니, 쌀 다 먹었어?" 그러면서 쌀독도 열어보고 (없으면) 거기다가 불펜으로 적어요. 쌀. 그러면 그 다음 달 꾸러미에 그 할머니 집은 쌀이 들어가야 되는 집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스프, 국수, 이거는 이가 지금 안 좋다는 상황이면, 그런 것들로 지금……. 서비스 제공기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7. 기타 복지관에서 외부 공모 등을 통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7.1. 아산사회복지재단 저소득(독거) 노인 지원사업: 밑반찬 배달

7.1.1. 사업 개요

-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모사업으로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밑반찬 배달 지원사업이 있다.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 사업수행 기간이 12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이며, 3개월 단위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한다.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원 사업 신청													
사업 진행 기간													
실적보고서 제출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대상자는 독거, 차상위, 저소득, 일반저소득, 보훈 등 정부지원이 있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이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와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대상 적합검사’를 거쳐 확정하였기 때문에 기관에서 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된다.
-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처음 제출했던 대상자 추천 양식에 변경 전·변경 후 대상자의 일반사항을 변경사유와 함께 기입하여 협회로 공문 발송하면, 협회에서 공문 확인 후 우선상으로 대상자 적합 판정 연락을 준다.
- 대상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해 밀반찬을 주 2회(1회 배달시 2찬) 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렵거나 기타 사업 수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 2회 배달이 어려우면 주 1회 배달시 주 2회 배달물량(총 4찬)을 모두 지원하여야 한다.
 - 또한, 기관 내에서 주 2회 밀반찬 조리가 어려운 경우 주 1회는 밀반찬 조리품을 배달하고 1회는 완제품을 구입하여 배달해도 된다.
- 신선하고 안전한 밀반찬 배달을 위해 배달용 가방을 제작·지원하고, 그밖에 필요한 도구, 취사연료, 일회용품 등도 지원사업비의 5% 이내에서 구입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가방 1개당 총 4명(1회 2찬)의 지원대상자에게 배달이 가능(총 8개 용기 배달 가능)하다.

※ 시사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사업이 기획되어 유사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과는 차별화됨

- ① 복지관에서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한국노인복지관협회와 아산사회복지재단에서 판정하는 과정을 걸쳐 확정한다. 반찬배달사업이 많지만, 여전히 욕구가 많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재단에서 혼자 하기엔 부담스러운 절차이기에 협회에서 협조하는 것이다.
- ② 보통 주1회 배달하는 사업과는 달리 주2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찬을 2번에 나누어서 2찬씩 전달하여 **신선한 음식을 지원하는 측면과 대상자를 자주 방문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완제품을 구입하여 배달하더라도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 ③ 또한 항상 위험한 지점인 음식의 신선도와 위생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용 가방을 제작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회용품 등에 대해서도 비용 지출이 가능하도록 풀어주는 것은 **사업관리가 현장의 요구에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 ④ 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예·결산으로 인해 **농한기(12월부터 2월)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이 사업에서는 없다.

7.1.2. 사례: 진도노인복지관 공모사업 운영

- 이 사업은 복지관에서 조리 및 포장을 지원하고, 사업비는 유급봉사자 1명 인건비를 포함하여 1회 비용 2,000원 기준으로 대상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진도노인복지관은 2015년 한 해 동안 총 1억여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 진도노인복지관에서는 독거, 차상위, 저소득, 일반저소득, 보훈 등 정부지원이 있는 수급자를 제외한 노인 중에서 수혜 대상자를 총 77가구 선정하였다.

- 7개 전체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면별로 10여 가구씩 지원하고 있다.
 - 10가구는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2개 섬⁸⁾에 거주한다.
- 복지관 영양사가 메뉴를 작성하는데, 보통 경로식당 메뉴 중에서 주메뉴와 완제품, 혹은 주메뉴 2개 등으로 구성한다. 주 2회 배달하고 있다.
- 주 2회(화/목) 1회 2찬씩 밑반찬(회당 단가 2,000원)을 배달한다.
- 복지관에서 각 면사무소에 밑반찬을 전달하면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가정 방문할 때 직접 전달한다. 섬지역은 지역 교회 목사님 편에 전달하기도 한다.
 - 2개 섬 지역의 경우, 지역 교회에서 5가구씩 담당하고 있다. 식자재 비용을 복지관에서 후원하고 지역에서 조리하여 직접 배달한다.⁹⁾
- ※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재가노인 대상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인력이다.

 - 필요한 물품이나 후원품을 전달할 때도 이들이 가정 방문 시 전달한다.
 - 이들이 어르신들의 생활실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욕구 조사할 때에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밑반찬배달사업은 복지관 경로식당의 자원을 연계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 하지만 경로식당에서 조리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고,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야 한다.

8) 진도군에는 200여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

9) 진도노인복지관에서는 섬은 지역 교회와 연계하여 밑반찬배달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7.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이 있다.
 - 지역 특성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17개 시·도에서 주최하고, 16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한다. 각 시·도별로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 부처 간 협력 사업은 국방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일부, 경찰청, 보훈처 등과 협력하여 공모한다.
 -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분교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일회성 행사(적정인원 15명, 3시간 소요)로 방문한다.

- ‘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안내’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이 사업은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 전문적으로 훈련된 예술강사를 파견·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노인·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지역별, 대상별 교육참여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분야별 예술강사를 선발한다.
 - 선발된 강사를 각 복지시설의 교육현장에 파견하여, 연 35회(1회 2시간/3월~12월) 교육을 지원한다.

-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다음 유형의 시설만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	대상시설	협력기관	지원분야
아동	아동복지시설(법인시설)	-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노인	노인복지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무용, 미술, 연극, 음악, 사진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

○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원조건
 - 1개 시설에서 최대 3개 반까지 지원 가능 (※ 교육대상자 기준 중복수혜 불가)
 - 교육인원은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으로 편성
- 교육지원금 지원: 1인당 최대 17만원(미술분야 외 1인당 최대 15만원)
 - 대상자 등록인원에 따라 교육지원금 교부 (예: 170,000원X대상자수)
 - 교육재료비, 현장학습비, 진행비 등 (※세부 지원항목은 추후 협회를 통해 안내)
- 교육기자재 지원: 시설별 기자재 수요 확인 후 일부 장르 별도 지원
-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음악분야에 한하여 지원(회차당 40,000원/ 1개 반당 1인)
 - 보조강사 채용을 복지시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선정기관에서 근로계약체결 및 산재 보험 가입, 인건비 지급을 진행해야 함
- 사업기간: 3월~12월

○ 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시설에는 원활한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위해 현장학습비 및 소모성재료비,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또한 수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분야 전체 참여시설 및 아동음악, 노인음악 참여 시설 대상 보조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함께 지원한다.

제 3 장

농촌 복지·문화 사업 운영 실태

- 현재 운영되는 복지·문화 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농촌 복지문화 사업의 주민 체감도와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농촌지역에서 사각지대가 누구인지, 서비스 전달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인지, 왜 서비스 효과성이 높지 않은지 등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업이 기획될 수 있다.
- 본 장절은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와 인터뷰 결과를 사업별 현황 및 문제점, 농촌지역에서 복지문화 사업이 추진될 때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농촌 복지·문화 사업 운영 현황

1.1. 밀반찬배달서비스

밀반찬배달서비스는 봉사자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움

- 밀반찬배달은 목욕이나 세탁 등에 비해 큰 노력을 투입하지는 않지만 받는

사람들이 고마워하기 때문에 봉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 그래서 밑반찬배달은 봉사자를 조직하기에 좋은 사업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원거리 지역은 밑반찬배달이 필요한 대상자가 있어도 그 지역에 대상자가 몇 명 없거나, 배달할 봉사자를 구하지 못하면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 기관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기 차량으로 배달할 경우 봉사자들에게 유류비를 실비로 제공하기도 한다.
 - 밑반찬을 배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1시간가량 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배달하는 비용이 밑반찬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비용보다 많을 수도 있다.
 - 눈이나 비가 오는 등 악천후에는 배달이 어렵다.
 - 마을 내에서 반찬을 조리하여 배달까지 하는 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A: 예산……. 솔직히 얘기하면 예산보다는……. 그 고립된 지역에 한 군데 다녀오기가 너무 힘이 드는 상황인 거예요.

B: 농어촌자체가 땅이 크잖아요. 저는 면사무소에만 갔다 주는데도 제가 4개 면사무소를 갔다 주거든요. 그런데도 그 날 밑반찬을 싸고 포장하면은 오전이랑 오후 절반이 끝나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갖다 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될 수가 없죠.

□ 밑반찬배달서비스는 위생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함

- 배달되는 반찬이 조리과정에서 위생상 문제로 인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거리 배달 시에는 진공포장이나 냉동 등의 가공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 주1회 배달되기 때문에 보관을 잘하지 않으면, 여름철에는 음식물이 상할 수도 있다. 밑반찬을 여러 번에 걸쳐 덜어서 먹고, 다 먹은 반찬통을 씻어 내놓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노인도 있다. 그래서 일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다.

-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조리할 수 있는 반찬의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로 확대하지 않으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

A: (마을에서 직접 조리할 경우) 위생사고가 가장 걱정이 되었어요. “과연 이 위원들이……. 물론 집에서 하는 것처럼 맛있게 하겠지만 대량으로 하다보면 여기서 지금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가장 큰 숙제로 다가 오더라고요. 근데 복지관에서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맛이 어떻고 양이 어떻고를 떠나서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A: 안전하게 조리할 수 있는, 그니까 인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깐 경로식당에서 조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과포화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차라리 “그러면 후원자 중에 조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인데 위생관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면 식당을 하고 있거나 반찬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됐을 때 위생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복지관에서 하는 게 제일 맞다, 라고 판단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B: 그래서, 실제로 섬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거의 배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 배로 가서서 전달을 해드리죠. 그 포장 자체도 좀 달라요. 이제 그 본섬 말고 다른 조그만 섬에 들어갈 때는 진공포장을 해요, 저희가. 이제 냉동으로 얼려서 가서 목사님이 재조리를 하던가, 이제 그거를 해동시켜서…….

B: 근데 이제 진공포장이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어요.

A: 저희는 재작년에 본예산에서 반찬값을 아껴가지고 소독고를 샀어요. 근데 일주일씩 로테이션 되잖아요. 근데 설거지를 할 수 있는 인지가능력이 있는 할머니라면 반찬그릇을 예쁘게 이렇게 잘 씻어가지고 내놔요. 항상 정해진 자리에 있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집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반찬 통째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일회용으로 다 바꿨어요. 2015년도부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름철에 식중독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음 팩을 싸잖아요. 다 일회용 용기로 싸거든요. 그 안에다가 일일이 다 넣어가지고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차 하면 한순간에 진짜……. 이 분들이 계속 집에 있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뭐 텃밭도 가시고 경로당도 가시고, 요일에 대한,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A: 금요일에 하는 이유가 주말에는 복지관 운영을 안 하니까……. 혹시 주말에 굶으실까 봐……. 근데 그것도 참 금요일에 돌리고 사고 나면 그것도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인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안전이 엄청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요.

□ **밀반찬배달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필요함**

- 서비스 대상자 규모가 커지면, 대상자 관리, 반찬 포장 및 배달, 자원봉사자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일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 진도노인복지관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유급봉사자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 밀반찬배달서비스는 단순히 반찬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식사지원과 함께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모니터링하고, 보살피기 위해 제공된다.
 - 자원봉사자에게만 맡겨 놓으면, 대상자를 보살피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배달하는 활동만으로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요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 대상자 집을 방문할 때 상황을 잘 살펴서 추가적인 욕구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가 이어질 때 주민의 체감도는 향상될 것이다.

A: 담당사회복지사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적어도 사회복지 공부를 했던 사회복지자격증이 있는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보조 인력으로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전담으로, 여기에만 집중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A: 근데 저도 자원봉사자들한테 보내면서도 늘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분들이 과연 전달은 잘 하는데 그 이후에 고민을 할까?" 물론 전달은 해줘요. 뭐 아들 집에 갔어. 요양병원에 갔대, 이런 얘기는 하죠.

B: 저도 그 분들이……. 실상은 그냥 가서 얼굴 한번 뵈고 끝나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자세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은 안 되어있고, 대상자를 딱 한번 보고 나오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A: 그러니까 맞아요. 진짜……. 수박 겉핥기 식……. 그니까 그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밀반찬 대상자 어르신들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내년에 바우처 사업 하나 할까? 그래서 전담인력 오면 그걸로 밀반찬 대상자들 사례관리 시킬까?". 왜냐하면 인력은 너무 부족하고, 좀 전문적인 접근은 하고 싶은데, 접근 방법은 늘 자원봉사자들이라는 한계는 있고, 이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시

키기에는 또 와서 자원봉사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막 그 시간을 너무 할애하는 것 같아서…….

A: 지역맞춤프로그램하면서 마사지 선생님한테 이거 일지 제출하면서 도시락을 들려 보내면서 거기 그 집에 찾아가서 진행을 하라고 했더니……. 그거는 효과가 좋았던 거 같아요. 그니까 그 집의 상황을 상세하게 좀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버리니깐 단가가 너무 높아지더라고요. 서비스 단가가…….

A: 이제 사람들은 후원물품을 어떻게 설비를 할까가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근데 정말 문제는 그게 아니다. 정말 문제는 이 물건을 어떻게 누가 전달을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다. 아니면 사후관리를 하는데 물건을 주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뭐를 연계를 할 것이냐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할머니가 단지 어렵다, 라고 판단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1.2. 세탁서비스

○ 세탁서비스는 목욕이나 물리치료처럼 사람과 직접 만나 시간을 보내거나 밀반찬배달서비스처럼 음식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지 않다.

○ 세탁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의 방문요양에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탁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서 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하다가 현재는 중지하였다.

M: 빨래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장기요양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요양보호사들이 거의 대부분 다……. 세탁, 빨래, 그 다음에 음식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군도 바우처 사업으로 세탁사업을 한 6년 동안 한 기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신청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중지한다 하더라고요.

□ 빨래방 운영의 어려움

- 세탁서비스는 빨래방을 운영할 경우, 세탁물 수거 및 배달, 세탁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없이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지원인력으로 투입되기도 하지만,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관리가 어렵다.
 - 세탁서비스는 세탁물 수거 및 배달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봉사자를 투입하여 수거 및 배달을 하다 보니 세탁물이 분실되거나 섞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 세탁물 건조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 세탁기의 잦은 고장도 지속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A: (군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간사님 한 분 두고근데 그 간사님도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간사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자원봉사를 돌려야 해서.

A : 그거 꽤 큰 사업이에요.

A: 그 노인일자리로 하시는 데가 꽤 있고요. 그 어르신들이 그니까 세탁기에 하루 종일 붙어서 빨래를 넣고 빨 수 있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세탁기를 구매를 하겠는데 구매를 하고 나서 사후에 그게 관리를.....

A : 저희는 (세탁서비스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세탁비 지출을 근거로 해가지고 “복지관 작은 목욕탕 안에 드럼세탁기 두 대를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세탁을 하는 건 좋은데, 위생..... 2차적으로 말리는 것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냐는 벽에 부딪혔어요.

G: 빨래방은 세탁물을 가지고 가서 세탁한 다음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면 등 먼 곳에 계신 분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세탁물을 수거, 세탁, 배달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이동세탁차량이 지원될 경우에도 마을별로 월1회 서비스가 제공되는 날에 주민들이 세탁물을 들고 나오면, 세탁하여 널고 말리는 일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 세탁차량 운영의 한계

- 이동식 세탁차량을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줄일 수 있지만, 차량 비용은

고가이고, 세탁이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다.

- 차량이 마을을 방문할 때를 기다려야 하고, 한 번 방문 시 세탁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서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A: 직접 차량을 가지고 있다면 거점을 어디다가 마련을 해놓고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이 빨래차 시스템은 "며칠에 가겠습니다." 하면 그 일정에 맞춰야 하다보니까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 정말 다급한 분들은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고), 한번 할 때 또 20벌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제가노인 대상이) 80가구 정도 되는데……. 제가 사이클을 돌려 보니까 골고루 해 드린다고 봤을 때 대 소변을 이렇게, 분비물 안 묻히시고,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빨라야 3개월에 한번 돌아오더라고요,

○ 세탁차량은 투입 비용에 비해 서비스 제공량은 비효율적이다.

- 차량가격도 비싸고, 유지·관리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에 차량 1대에 세탁기가 4대 구비되어 있고, 건조시간까지 감안하면 하루에 세탁할 수 있는 양이 제한적이다.

A: 세탁차량이 5,000만 원 정도……. 그것도 자부담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3년 인가 5년 이후에는 운영주체가 전액 부담으로 유지 관리 보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도 힘들고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B: 저희 공모해서 받은 거예요. 이번에 세탁기 바꾸는 건 저희 자부담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세탁기도 수명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바꾸는 건데…….

B: 세탁차 안에 드럼세탁기 4대가 있어요. 건조까지 가능한 건데, 건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세탁까지만 하고…….

○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직접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세탁차량을 보유한 기관과 MOU를 통해 정기적으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상 지역 세탁소와 연계하여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A: 그래서 찾은 답이 그거예요, 돈 안들이고 그 세탁 차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MOU체결해서, 한 달에 한번 날짜 정해주면, 그거라도 이용하는 거……. 근데 유지 관리 보수는

안 들어가고, 자원봉사도 그쪽에서 섭외해서 오니깐, 우리는 빨래만 제공하면 되니깐…….

A: 저희가 권한이 없다 보니까 해드려야 하기는 하고…….빨래차가 오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안 되시는 분들, 다급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세탁소로 제가 바로 갖다드리기도 하고……. 자부담, 법인적립금으로 해서 일상생활 지원으로 해서.

1.3. 건강체조교실

- 건강체조교실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많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생활체육회, 복지관 등 다양한 주체가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 강사는 제한적이어서 내용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다.
 - 또한, 원거리 지역은 이동에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지만, 한 번 방문시 수강생이 많지 않아서 강의를 1회 이상 연속해서 진행할 수도 없다보니 지급되는 강사료도 적어서 강사를 섭외하기가 어렵다.

- M: 지금 외곽지역에 들어가는 프로그램들은 많아요. 보건소도 들어가고, 장기요양, 건강보험공단도 들어가고, 주민생활과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농촌……, 활동증진인가 뭐 거기도 들어가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은 프로그램 ‘제공’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실적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 실적을 산출하기 위해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쉬운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다.
 - 이를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본다면,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
 - 프로그램의 효과는 이용자의 변화로 이어질 만큼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나타나는 것이고, 비로소 주민이 체감하는 것이다.

M: 근데 되게 단발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단발성으로 들어가서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각 들어가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한번 예산을 뽑아보면 되게 많아요. 예산규모가……. 근데 문제는 그 투입만큼 산출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깐 거기 계신 분들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오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나와서 본인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예요.

- 다른 사업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M: 관절염 예방 이것도 경로당으로 보건소나 그 친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실제로…… 건강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예산을 투입해서 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한다? 물론 이게 만약 1년 지속적으로. 어떤 회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1년 동안 지속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거는 권장할 만해요.

K: 지난번에 이렇게 기사에도 한 번 나왔었는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농촌지역인거 같은데 보건소에서 그 우울예방 그걸 위해서 20회기, 24회기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들어갔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효과성 이렇게 나왔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같은 경로당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목적성이 있는 거고…….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 실적위주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면, 지역사회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과 장소가 선정된다. 그래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과 장소의 편중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M: 여기까지만 가면 문제는 뭐냐 서비스로 들어가면 결국은 복지관에서 담당자를 하나 정해서 “야, 너 이 서비스 농촌으로 들어가서 가져가서 해봐라.” 그러면 아무런 조사도 안 되어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뭐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거점도 없고. 이제 거점 마련사업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예산을 5,000만원을 내려주더라도 가장 쉬운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뭐 경로당이나 그런 쪽 밖에는 접근 할 수 없다는 거죠.

M: 일단은 접근성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회복지사가

1명 들어가서 그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준 자원들을 개발하고, 그런데 이게 되지 않으면 저도 사상누각인 거 같더라고요.

-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된 이동복지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주춤하는 것도 프로그램 지원 방식 사업의 한계인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을 방문하는 데 그쳤고, 그 마을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알아야 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기획할 수 있으며, 마을에는 농한기와 농번기는 언제인지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시기가 달라져야 하고,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은 어디인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누구인지 등에 따라 프로그램 제공장소가 달라져야 하는 등 지역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다.

K: 오시는 데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찾아가자!” 라고해서 이동복지관이 한동안 붐이 었잖아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고 또 효과성 면에서도... 정말 생판 모르는 그 마을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군이라고 하지만 들어가면 타지에서 온, 타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인거죠.

M: 맨 처음에 이동복지관도 서비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프로그램...노래방 그 어르신들 노래교실. 뭐 이런 거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다보니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왜냐면 농한기, 농번기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도 경로당 중심의 문화이다 보니깐 확장성 개념이 없고....여러 가지가 안 맞았던 거예요. 서비스만 제공하니깐.

1.4.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보건소 치매검진사업

- 60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보건소장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3; 조미형 외, 2014 재인용).

- 치매검사, 치매 등록 및 관리는 보건소에서 수행하며, 일부 복지관에서는 보건소 치매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검사를 하고, 이후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 관련 프로그램이 아직 경로당까지 보편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 영광군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경로당에서 우울증예방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주1회 10회기 이상 진행하면서 노인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일부 복지관에서는 10~20여명 노인들이 주1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울증이 높은 노인은 복지관까지 나오지도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한계가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저소득 재가노인의 우울증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면, 서비스 제공 장소에 대한 다양화가 필요할 것이다.

1.5. 목욕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방문목욕서비스가 있어서 차량방문목욕이나 목욕탕 목욕지원을 받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차량방문목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 일부 지자체들은 지자체 소유 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중 목욕차량을 소유한 기관이 있다.
- 이들을 제외한 재가노인의 경우는 목욕탕으로 모시고 와서 목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목욕지원서비스는 수요도 많고, 제공시 만족도도 가장 높은 사업이다.**
 - 하지만, 목욕탕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에 1대 1로 자원봉사자가 배치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공이 어렵다.
 - 서비스를 한 번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서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 대상자 관리, 봉사자 확보 및 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등을 위해서는 전담관리자가 필요하다.
- B: 위험성이나 그런 것 다 따져 보면 복지관에 목욕탕도 없고요. 저희는 제공을 안 합니다.
- A: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르신들이 못 씻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막~ 밀어드렸어요.
- A: 처음에는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밥시간도 다 됐고, 빨리 밥 먹고 차 타고 집에 가야되는데……." 행동이 느리니까…….
- A: 처음에는 바우처 사업할 때 목욕서비스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주 1회. 그런데 목욕탕이 행동의 제약을 받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12분을 진행을 했는데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지 안심이 되겠고, 미끄럽고 하나니까……. 근데 실상 또 잘 씻으시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막 씻어 드렸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그래서 또 자원봉사자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게, 어르신들이 씻겨드리는 거를 좋아하세요. 이게 서비스 제공 기능이 되려면 인력부분이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만을 위한 소수의 인력이라도 배치가 돼야 된다고 하면 실행가능성은 있을 거 같아요. 충분히.
- 목욕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에서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대상으로 목욕차량을 이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차등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목욕서비스는 목욕시설로 모시고 가서 직접 목욕을 시켜드리는 것이다.
- 목욕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모시고 이동해야 하고,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어 자원봉사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목욕지원까지 해야 해서 힘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공받는 노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 지역사회 목욕시설에서 목욕비를 후원하기도 한다.

- 인근 온천으로 외출하여 점심식사까지 제공하는 1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최소한 자원봉사자 1명에 노인 2~3명의 목욕이 가능하다.

1.6. 복지셔틀버스 운행

- 원거리 농촌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운영 시에는 차량 운행 시간, 탑승 자격 등 세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장날에 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와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점심 먹고, 장을 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반응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읍내 병원과 협약을 맺어 병원비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 하지만, 차량운행 시 당일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고 장만 보는 사람이 타는 것을 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의성군노인복지관 분관의 경우, 직원이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읍내로 나가는 대형버스를 운행하려고 기획하였으나, 실제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포기하였다고 한다.
 - 셔틀버스를 운영할 때 운전기사 고용비가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지역은 운전기사 인건비가 비싸고 대형차량운전이 가능한 봉사자를 구하기 어렵다.

1.7. 병원동행 및 장보기 대행서비스

- 병원동행이나 장보기 대행서비스는 예전에는 재가복지서비스로 제공하였으나,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등에서 제공된다.
 - 장보기대행서비스보다는 본인이 직접 장을 볼 수 있도록 이동을 지원하

는 것이 만족도가 높다. 대신 장을 본 상품들에 대해 어르신이 금액과 품질 면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촌 대상 신규 복지·문화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2.1.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함

-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들과는 대상자나 사업내용 등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차별화된 부분이 있어야 한다.
 - 이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것인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중복 지원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 A: 거동불편 어르신들 이미 밀반찬배달, 도시락배달 다 받고 있고 세탁 다 하고 있고, 근데 이 부분들을 또 추가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넓히자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더 질적으로 높이자는 건지……
 - C: 여기 보면 밀반찬 세탁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센터……. 전문센터들이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추가로 한다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중복서비스를 오히려 더 권장하는 거고요,
 - B: 농림부에서 실적 잡아야 되는데 내용은 다 복지사업이에요, 보건복지거든요. 그렇다고 복지부에서 실적 안 잡는 줄 알아요? 복지부에서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중략) 여러 읍면에 있는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사업의 일부 지원,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 C: 근데 실제로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받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깐 농림부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서비스다.
- 모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서비스 중복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

비스 대상자의 범위를 축소시켜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 특정 대상자들에게 충분하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 효과성이 높을 수 있다. 신체적 불편, 독거노인, 우울증 등 서비스 대상층을 명시하면 이들에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할수록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는 대충 진행할 수 없다. 사업 공모 시 구체적인 대상과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 예를 들어, 밀반찬배달서비스 사업 대상자는 시니어클럽 및 아산재단사업 대상자를 제외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 지역에서는 사업 지침이 구체적일수록 사업을 운영하기가 오히려 수월하다.

2.2. 사업 운영 인력 지원 필요

- 복지관이나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개별 사업 단위로 공모를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성이 높지 않을 것이다.
 - 대중적인 사업은 수백만 원 정도의 소규모로 외부에서 후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업비의 출처가 다르지만 사업내용이 유사한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1명의 사업 담당자가 지원되는 사업별로 특화하여 관리할 수 없고, 수혜자들도 어디로부터 지원받는 서비스인지도 모른 채 받게 된다.
 - 농촌지역 복지기관들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공모 사업에 집중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복지관에 있는 1~2명의 인력이 여러 가지 사업을 모두 운영하는 실정이다.
 - 공모하여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지역에 맞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매뉴얼에 따른 수동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 기존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원비용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즉 밀반찬배달서비스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 현재 수십 가구 배달하고 있는 서비스

의 횟수를 늘리거나 대상자를 늘리거나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한사람에게 기존 사업으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공모사업으로도 지원되는 형태인 것이다.

C: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떨어뜨리면, 이게 어떤 전달체계에 떨어질지도 모르
고, 지겨워하는 데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만큼 그렇게 효과
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C: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제공이 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예산범위 내에서만
우리가 한정된 인원에게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 밀반찬배달, 세탁, 목욕 등의 재가복지서비스에서 대상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만약에 대상자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인력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한 현장에서는 이미 주고 있는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려고하지,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가정방문을 통해 제공되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이용자가 한 곳에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와는 달리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

- 프로그램은 강사가 수행하고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이용자 모집, 홍보, 강사섭외 등)를 한다. 강사료는 사업비에서 직접비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반면 재가복지사업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이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동원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교육과 활동 관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

- 재가복지서비스의 경우 봉사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운영할 수 없다. 이미 지

역사회나 기관 차원에서 봉사자가 조직되어 있지 않으면, 당장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

-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내용 이외에 봉사자 조직 및 운영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2.3. 서비스 양의 확대보다는 접근성 강화가 중요

- 현재 복지기관의 조직구조나 예산 집행 등으로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제공방식의 변화 없이는 농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A: 이제 서비스 제공기능의 한계점에 도달하다 보니까 이게……. 담당자로서 항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서 한계점, 그게 근본적인……. 조직구조라던가, 경비, 그런 부분들에 부딪히다 보니까…….

- 농촌지역의 문제는 서비스 양의 부족보다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이다. 즉,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보다는 기존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내용을 정해서 공모하는 방식보다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사업을 장기적으로 운영하며 깊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순한 건강체조교실을 하더라도 20회기 이상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면 참여자의 관계 개선, 우울감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사업을 진행할 때도 처음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 번에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지역을 묶어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에 본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 특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부분의 정부지원 사업은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한 농한기인 12월에서부터 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다.
 - B: 그리고 또 하나 그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처럼 서비스로 들어가게 되면 사업기간이 문제예요. 진짜 필요한 기간에는 사업이 종료돼요. 그리고 그 다음 사업비는 2, 3월이 되어야 시작한다는 말이죠.
 - A: 특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가 또 1, 2월……. 12월부터 그 농한기인데, 그 시기에 사업을 못해요.

2.4.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은 독립적인 생활 저해 및 서비스 의존성을 높일 우려가 있음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 않고 제공하기 쉬우면서도 생색내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조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찮아서 식사를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경우, 집으로 반찬을 배달하는 것이 최적의 서비스인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대상자의 변화나 자립을 위해 필요한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B: 저희가 사례관리를 가보면 이 분은 그냥 기능성만 조금 높여주면 될 뿐인데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던 말이야. 그럼 그 양반은 도시락을 받음으로 인해서 밥과 반찬을 안 해요. 기능이 완전 퇴화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퇴화가 되는 거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다하려고 하느냐? 가장 하기 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하기 쉬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 생색도 낼 수 있고

A: 또 가장 많이 원하기도 하잖아요. 단순하게 가장 많이 원하는 거…….

C: 근데 이제 저는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원하시더라도 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이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욕구 있다고 해서 다 갖다 준다? 그건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A: 재가복지 대상자 중에는 아직까지는 인지능력이 있고, 거동이 잘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도시락을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이분들의 기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장보기 대행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장 한번 가실 수 있는 거 내가 안가시게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오히려 버스타고 가면 글씨도 읽어야하고 차시간도 외워야하고 시계도 봐야 되니깐 이게 좀 생각을 하시는데 나 때문에 오히려 그 기능을 좀 떨어뜨리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본 적이 있었거든요.

A: 재가복지 어르신들이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깐 더……. 치매나 이런 길로 접어들기 전에 어느 정도는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자립 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행복감. 그 다음에 일터에 가면 누군가를 만나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져 본적이 있었어요.

M: 저는 이런 사업도 어떻게 보면 복지에 위배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솔직히 복지의 목적은 자립·자활이거든요. 근데 반찬을 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도 반찬을 배달한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기능을 퇴화시키겠다. 라는 거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깐 도시락 사업이 대표적인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사례관리를 가보면 이분은 그냥 기능성만 조금 높여주면 될 뿐인데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던 말이야. 그럼 그 양반은 도시락을 받음으로 인해서 밥과 반찬을 안 해요. 기능이 완전 퇴화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다 보니깐 이분이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이제 퇴화가 되는 거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다들 하려고 하는지……

- 사업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경우, 목욕이나 세탁서비스는 지자체에서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중에서도 손쉽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선택되어지는 크리밍(creaming)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3. 농촌 복지·문화 사업 추진 방향

3.1. 개별 단위 사업 지원보다는 전달체계 지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과 차별화되기 위해서는, 즉 기존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사업내용을 정해서 공모하는 방식보다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복지관에서 이미 지역 주민의 욕구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중에서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묶어서 제공**하면 된다.
 - 여기엔 사회복지사 1명, 프로그램 공간, 강사비 등의 사업비만 지원되면, 10개 아니라 20~30개의 프로그램도 운영될 수 있다.
 - 이 때, 사회복지사는 지역 안에 상주하면서 프로그램 공간에 찾아오는 주민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면,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 **농촌지역 이동복지관**의 경우,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역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주1회나 월1회 3~4시간동안 외부에서 방문하여 마을의 행사처럼 운영되었다.

- 당일 열리는 프로그램에 관심있고 시간이 되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다.
-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는 주민들에게 **"타지인의 방문"**이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의논하거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C: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데가 가장 노하우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지역을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이고…….
- C: 서비스 개발은 고민할 게 없어요. 일단은 거기에 이제 그 지킴이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거점에 나가게 되면……. 지금 복지관에 있는 사업들이 거의 개발된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그 개발된 사업 중에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 그 사회복지사한테 제공만 해주면 되거든요.
- C: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는 그걸 운영을 해서 …… 그 친구가 이제 1년 동안을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과 라포가 형성되면 지역의 자원들, 자원봉사자를 개발해서 또 교육시켜서 지역에 투입시켜서 같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어떤 접근이라는 거죠.

정선군 화암면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700명, 복지시설이 전무한 지역 - 119소방대 있던 자리를 군청에서 공부방으로 리모델링하여 복지관에 운영 위탁 - 현재 화동초등학교 전교생 35명 중 25명이 공부방에 등록 - 지역사회주민이 참여: 자율방범대에서 아이들 송영서비스, 부모는 간식 지원 등 - 면사무소에서 운영비, 복지관에서 사업비와 인건비 지원 - 공부방의 파급효과로 주민 자치적으로 노인대학을 운영(복지회관 이용)
<p>* 서비스제공기관은 지역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인들이 평소에 욕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직원들과 친하지 않아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직원과 주민 사이에 라포가 형성되면 자발적으로 찾아온다. 사람들을 끌어 모아서 억지로 하려고 하면 효과가 없다.</p> <p>* 복지관에서 2년여 기간 동안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주민들을 만나왔다.</p>
<p>K: 거기에 복지시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면사무소랑 119, 자율방범대 이런 봉사단체가 있는데……119소방대가 이사를 가면서 나온 <u>건물이 하나 나왔는데</u> <u>그거를 면사무소에서 뒤로 쓸까</u> 고민을 하시다가 <u>그 마을에 아이들이 학원도 없으니까</u> <u>하다못해 공부방도 없고 해서…….</u>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리 모델링을 나름대로 하신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자체에서 직접…….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다 의뢰를 했는데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저희도 처음에는 효율성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방과후를 하니까……. 그래서 조금 처음에는 아니다, 라는 판단을 했는데 면에서 계속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p>

결국은 하게 되고, 그 화동초등학교라고 있는데 전교생이 35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25명이 공부방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7월부터 시작을 해서 9월 달에 이제 개소식 현판식을 했는데 그 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자율방범대가 아이들 송영 서비스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간식 대주시고, 면사무소에서는 운영비를 대시고……. 사업비랑 인건비는 복지관에서 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게 막~ 이렇게 되니까……. 요번에는 어르신들이 아 그러면 우리 거기가 저희 정선 중에서 유일하게 노인대학이 없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노인대학을 만들자 그래서 결국은 노인 대학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니까 그게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하면서.

○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면 지역에 사회복지사 1명씩 파견하여 면지역에 유희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역에 복지관이 들어서면 분위기가 바뀌고, 사람이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만나다 보면 라포가 형성되고, 필요한 욕구를 표현하게 된다.
- 중심지의 복지관을 1차로 보면, 면지역이 2차 접근성,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3차 접근성이 될 것이다. 2차 접근성까지가 확보되면 3차 접근성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다.

C: 그러니깐 이게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한계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제한된 숫자들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내년도에 시험적으로 해보려는 게 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접근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솔직히 군에 복지관이 들어서면 그 군의 분위기는 좀 바뀌어요, 확실히. 근데 그게 그 읍 중심의 전달체계라고 했잖아요. 면에 복지회관들이 하나씩 다 있더라고요. 근데 복지회관이 지자체에서 되게 한 15억 정도 들어서 건물을 되게 좋게 지어놔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만약 저희 복지관 중앙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인력을 1명씩만 파견을 하더라도 그 지역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복지관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차피 이제 뭐 문화라던가, 복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 쪽으로 조금만 좀 이동이 된다. 라고 하면은 이동하기는 힘들지만은 기존인력이 거기에 뭐 거기 불박이로 1명씩 배정이 되어있다고 하면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거

든요. 그러면 1차적인 어떤 이제 2차적인 접근성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면 마지막 3차 더 떨어진 곳은 어떻게 하느냐 라는 건데. 2차 접근성이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며 접근성에 확보가 되면 여기서 또 뺄어나가는 건 더 쉽다. 라는 거죠 마을로 들어가는 거는…….

C: 그 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센터가 하나만 거기 선다. 라고 하면은 지역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깐 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못 시키는 거지 오면 교육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어떤 의식도 고취가 되고……. 결국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군 단위가 이렇게 또 복지가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좀 처진다고 해야 되나……? 낮은 거는. 결국은 그 군의 시민들이, 군민들이 복지의식 수준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깐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하시는 측면도 많고, 무조건 복지는 본인이 받아야 되는 게 복지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한테 제공하는 것을 복지라고 알고 있으니깐 그런 정도의 복지의식수준 가지고는 저희가 원하는 복지관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C: 하나의 서비스사업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잘 개발을 해서 자생할 수 있게끔 이제 조직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큰 틀에서 좀 봐야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는 이제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C: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한 방식대로라고 하면 들어간 마을 전체를 커버하는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3.2.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원거리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 마을로 찾아가는 사업들의 대부분이 경로당활성화사업이 들어가는 대표경로당에서 진행된다. 실적을 내기 쉬운 장소에 프로그램들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 대표경로당에서는 식상해 하는 프로그램들이 원거리지역에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는 지역에 있는 노인들에게는 제공되지도 못하고 있다.

- 복지관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마을,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 그동안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않는 지역, 즉 서비스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 주민 만족도가 훨씬 높을 것이다.

M: 경로당활성화 사업으로 대표경로당에 가잖아요. 거기는 실적이 잘 나오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을 해도 되도록 많이 모이시는 곳으로 가서 해요. 이동세탁도 하고 건강관리 등 여러 가지 제공하는데, 그분들은 이미 많은 혜택을 보셨어요.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식상해 하세요. 진짜 필요한 거는 조직화 사업으로 해서 오지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소그룹이지만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건강관리 이런 게 진짜 필요하다."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닌 거 같다." 올해에도 했었어요, 대표경로당에서……. 근데 이제 오시질 않으시더라고요.

A: 그러니깐 읍 단위는, 읍은 무조건 제외! 읍이랑 붙어있는 ○○면, 거기도 무조건 제외. 그렇게 해가지고 지도로 나뉘어요, 아예 경계를.

A: 이번에 '농촌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복지관 버스가 안 지나가는 동네……. 그 다음에 경로당활성화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경로당만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 거점을 진행을 했는데 거기는 어르신 10분을 진행하는데 자원봉사자가 12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재가복지 대상자만 그날은 진행하는 날이었거든요. 어르신들에게 여쭙봤어요.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내 평생에 이런 호강은 처음이다."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깐 각 읍이랑 가까운 경로당일 수록 당연히 복지니깐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개념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멀리 더 멀리 갈수록 어르신들 반응이 "고마워……."

- 이 때,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로당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확장의 한계가 있다. 마을회관 등 공동의 이용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C: 복지관 같은 경우에 타깃 맨 처음에 저희는 경로당으로 들어갔어요. 경로당으로 들어갔

는데, 복지회관을 올해 고민을 하게 된 게 일단은 (경로당은) 확장성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회원중심이다 보니깐 확장성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도 복지회관을 비싸게 지어 놓고서 운영이 거의 안 되니깐. 상당히 좀 골치 아파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역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확장성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장성이 넓어지다 보면 그 회관이 있는 그 거점은 그래도 복지마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중심 센터가 될 수 있으니까…….

3.3.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거동 불편 재가노인으로 확대 운영

- 기존의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허약한 재가노인은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야말로 혼자 방치된다. 모시고 나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예를 들어, 복지관에서는 이용노인(즉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마사지, 네일아트 등의 뷰티프로그램을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에게도 제공하는 것이다.
 - 치매예방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아도 정서적인 지원은 농촌 재가노인들의 치매를 예방하고 지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 A: 저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지역주민들한테 반응이 바로 바로 왔었고, 바로 그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이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재가복지 쪽으로 더 비중을 주면서 확대해 가는 구조로 가는데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일 년 내내 가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마사지 선생님들은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그니까 자기를 예쁘게 해주고, 자기한테 위안을 주고 실질적으로 만져주고, 이 사람들을 저보다 더 좋아하셨거든요, 진짜 같이 가도 늘……. 그니까 치매가, 치매 걸린 어르신들을 방치하면 이제 조금조금 시작될 때는 모르겠지만 그게 폭발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만져주고, 이야기해주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늦어진다고 저희가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재가노인을 모시고 나와서 일반 노인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확대구조로 가면서 이 비중을)……(늘리려고 해요. 그 전에는 경로당을 이용을 하면서

소수의 재가복지어르신들을 이렇게 이 카테고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재가복지어르신들한테 직접 가서, 이거를 할 수 있는 확대구조로 갈수 있는 방법을 극복해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중요한 거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혼자 어찌 됐든…… 프로그램을 진행 안 해드리면 방치되는 분들이시니까.

- 허약한 재가노인이 집 안에만 머물지 말고, 마을 노인들과 융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 재가복지 대상자 어르신들이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끼리를 만들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러니깐 모시고 가든 안내를 해드리든 자발적으로 한 두 번은 모시고 갈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재가복지 할 때 경로당에 음식 갖다 드릴 때, 꾸러미를 싸가지고 마을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숙제를 내드렸어요, 어르신한테. “그래도 어르신은 오토바이 타고 경로당에 오시잖아요. 근데 거기 누구 어르신은 못 오시잖아요.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오시겠어요?” 그럼 아니래요. “그럼 한 달에 한번만 심부름을 하시게요.” 그러면 알았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이거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인수증 사인 받아오세요.” 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23분……. 처음에는 딱 짜증도 내시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아직까지는 마음이 유해서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딱 갖다드리고 “이번 달 꾸러미요~” 하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 좀 더 일찍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동네 어르신한테 갖다 드리려고.

- 단기간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라 3년 이상 연속사업으로 지원되면, 사업의 효과성도 높아지고 이후에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C: 3년 연속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1년하고 평가하고, 1년하고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C: 좀 지속적으로 인력이 지원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3년 후에) 저희가 지자체에게 “이 정도 효과 냈으니깐 이제는 지자체에서 지원 좀 해 달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B: 그러면, 농번기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B: 이거 처음에 지자체에다가 사업을 줄 때 3년 뒤에 자생할 수 있게끔 지원하도록 꼭 지자체장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게……

3.4. 자원봉사자 활용

- 지역 스스로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자원봉사자로 함께 참여해야 한다. 복지기관의 인력으로는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 가정방문이나 대상자 송영 등 원거리 이동이 필수이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인력이 동행해야 한다.
 - 밀반찬배달서비스, 목욕서비스 및 세탁서비스, 병원 동행이나 장보기 대행서비스는 자원봉사자 연계가 필수조건이다.

 - 자원봉사자 조직이 꾸러져 있는 기관들은 그동안 활동 경험을 토대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만 있으면, 다양하게 사업을 기획할 수 있다.
 - 지역사회에서 경찰서, 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다.

 - A: 저희는 소방서를 좀 연계를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소방서, 의용소방대가 좀 활성화가 되어있는데요, 의용소방대에서 독거노인들한테 한 번씩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못가는 곳에 이분들이 좀……. 전화기도 달아주고 그러시잖아요, 명단추천 받아서. 근데 그 명단이 재가복지 대상자 명단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명목은 전화기가 잘 작동이 되어 가고 있는지 합선에 우려가 잘 되어있는지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의뢰를 하면……
 - A: 저희가 못갈 때 경찰서까지 연계를 해봤어요.경찰서에서 조손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푸드뱅크에서 후원을 계속 해주고, 거기 파출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 분이셨어요. 사고발생이 많지 않잖아요. 면사무소는……. 그래서 지금도 저기 푸드뱅크 꾸러미는 면사무소도 가지만 경찰서도 가고 있어요. 어차피 순찰 라인이니까. 그 라인에…….
-
- 의성군노인복지관의 경우, 의용소방대, 부녀회, 재향군인회 등의 의성군 내에 있는 20여개 단체의 회장 모임으로 봉사단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다. 총 400~500명 정도가 권역을 동서로 구분하여 각 지역에서 따로 활동하고 있다.
 - 복지관 내에서 봉사자가 필요할 때(경로식당 운영, 행사 진행 등)에는 회

장단이 복지관과 간담회를 하여 각 단체별 자원봉사자 동원 가능 인원수 등을 합의한다.

- 강릉시자원봉센터의 농가먹기운동도 총 5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 260가구에 밀반찬배달 등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3.5. 기타

- 농촌지역 사업의 경우, 무엇보다도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중요하며, 인력을 배치할 때는 연속사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배치되는 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점 이후부터는 기하급수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밀반찬배달서비스에 비해 목욕서비스 및 세탁서비스는 프로그램 전담 인력 배치 및 자원봉사자 연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다.
- 민간 재단에서는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단년도 사업이 아니며, 전체 지원 금액의 50% 이내에서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계·협력사업의 경우 전담관리자 역할이 중요하고, 단기간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M: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나 배분사업기관들도 그 지역 안에서 연계사업이나 연합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은 인건비를 제공해 줘요.

L: 50%내에서.

M: 저희가 삼성에서 올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뽑을 수 있는 예산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비에서 이동을 위한 비용을 따로 책정할 수 있도록 열어 줄 필요가 있다.

- 대상자들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거주하고, 교통편이 나빠서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 지금까지 공모사업들은 이동비용을 기관에서 전액 부담해 왔다. 차량 지원비나 유류비 등 이동비용을 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원거리지역으로 방문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농촌 복지·문화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방향

- 농촌지역 복지·문화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내용 측면에서 새롭게 지원해야 할 내용을 발굴하기보다는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도록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지역 복지·문화 사업은 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적은 인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여 서비스 전달이 어려운 농촌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원거리지역까지 확대·추진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이용자의 수가 아니라 읍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 물리적 거리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 그리고 농촌지역에서도 복지관 또는 대표경로당 이용노인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참여하고 부족할 경우 요구할 수도 있지만, 거동 불편한 재가노인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

- 농촌지역 복지·문화 사업은 전달방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정방문 중심의 재가복지서비스인 밑반찬, 세탁, 목욕, 장보기, 병원동행 등은 자원봉사조직과 연계해야 한다. 지역 안에 전달체계가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담 인력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 둘째, 지역 거점에서 진행되는 건강체조, 치매예방 등의 집합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은 지역의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거점-분소 형태로 운영한다.
 -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이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 1~2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지역에서 이미 사업을 해 온 경험을 기반으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전달체계 내에서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환경 변화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한 농촌공동체 회복을 지향할 수 있다.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이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미 구축된 민간 전달체계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농촌형 전달체계인 것이다.
-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복지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제공하기 편한 서비스가 아니라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의 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하나의 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프로그램으로 제공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한정된 인원에게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인력을 지원하면, 마을 전체를 포괄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우선, 지역의 유희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람이 모이면,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고, 그러면 주민 의식이 함께 고양되면서 주민조직화로 이어질 수 있다.
 - 면 주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이 운영되면, 지역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 프로그램 장소로 경로당보다는 가능한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의 복지회관이나 문화원 등을 이용하면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
 - 프로그램 참여가 활성화되면 공간을 거점으로 하여 복지마을을 만들 수 있는 중심센터 역할이 가능해진다.

-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이동복지관(찾아가는 서비스)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서비스 제공 기능만으로는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 안면부지의 사람들이 생전 처음 가보는 마을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어간 것이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군 지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지에서 온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마을에서 주민들 사이에 자리를 잡아야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마을의 상황과 문화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재배작물에 따라 농한기와 농번기가 다르고, 마을마다 특성이 있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2. 추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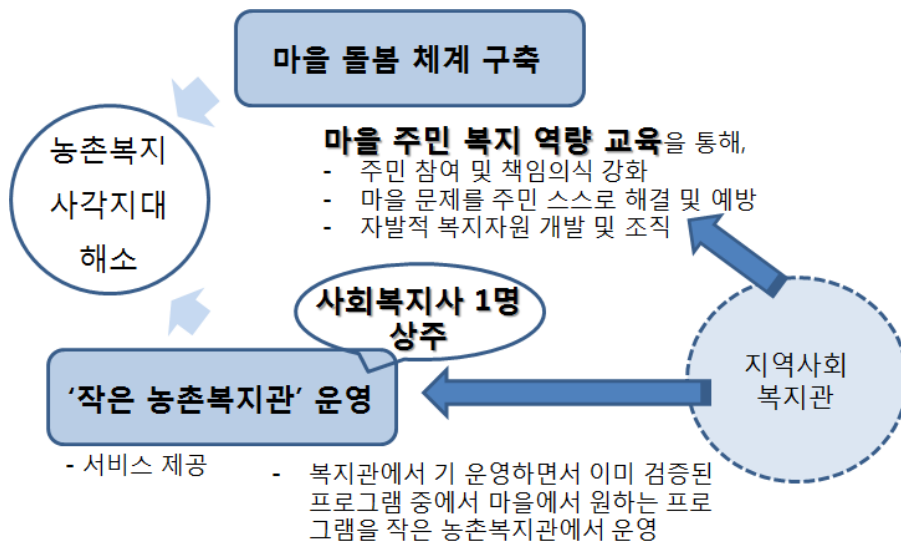
2.1. 복지관 중심으로 거점-분소 운영: '작은 농촌복지관' 운영

- 현재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업을 사업 단위로 공모하여 지원하는 것은 효과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것이다.
 - 개별 단위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 이상 투입비용 대비해서 주민의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도 농촌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달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일단 전달체계를 구축하면, 원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큰 비용 투입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 농촌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다.
- 이를 위해서, 농림부에서 복지사업 공모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는 중심지 읍·면 지역이 아니라, 배후마을 지역이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건강체조교실 등의 복지·문화 프로그램이 한번도 운영된 적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 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마을종합개발사업 등으로 마을 내 유휴공간 활용을 활용하면 좋다.
- 둘째, 복지기관(복지관 등)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대상

마을에서 제공한다. 이들 기관을 거점으로 해당 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받는 것이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문화, 건강 프로그램 중에서 마을에서 필요한,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묶어서 제공하는 것이다.

- 건강체조교실이나 치매예방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 각 마을별로 프로그램 꾸러미가 달라지며, 그 안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담길 수 있는 것이다. 그 사례로 의성군노인복지관 분관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부록 3>참고).
- 앞에서 살펴본 지역 복지·문화 사업 현황을 참고하면, 어떤 지역에서는 노인 문화여가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 등의 사업을 넣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을 함께 넣어서 방과후 돌봄이나 공부방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장애인 서비스가 전무한 지역에서는 일부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넣을 수도 있도록 지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것이다.

그림 4-1. 작은 농촌복지관 모델



- 셋째,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복지기관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원거리 지역에 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을 상주시킬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 이 때, 지역의 상황과 기관의 준비 정도에 따라서 공모사업을 2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미 분소를 준비 중인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면 바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현재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원하는 형태이면, 인건비 5천만 원, 사업비 2천만 원, 총 7천만 원 정도이면 1년 한 장소에서 10여 개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조사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단계를 거쳐야 할 것이다.
 - 3~6개월 정도 지역조사 및 프로그램 기획의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토대로 3~6개월 정도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모할 수도 있다. 즉 지역조사에 대한 과정을 사업의 일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 여기서 수집된 지역조사 결과는 이후 농촌지역의 복지수요 및 욕구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2.2. 거동 불편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

- 지역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밀반찬배달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락이나 밀반찬 배달은 지역에서 주민 욕구가 많으면서 제공하기 쉬운 사업이다. 복지관 재가복지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재가지원서비스, 민간사회복지재단 후원, 자원봉사, 지자체 지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다.
 - 그럼에도 사각지대는 배달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이고, 주1회 밀반찬 배달

- 만은 충분하지 않으며, 밀반찬배달이 제공되는 대상자 중에는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례들이 많아서 지속적인 돌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하면, 밀반찬 배달로 끝나는 서비스 실적에 기여할 뿐, 수혜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서비스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 현재 운영되는 사업들과 차별화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사업은 기존의 밀반찬배달사업과는 어떻게 다른지 공모할 때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이 사업은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인지, 질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 아산사회복지재단 공모사업처럼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하지 않는 한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기존 복지부 사업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측면으로 작용할 뿐 농촌 주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을 체감할 수 없다.
- 밀반찬배달, 세탁, 목욕, 장보기 대행,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는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나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한, 거동이 불편하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되는 허약한 노인이나 장애인이다.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아닌, 이들이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다.
- 하지만,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다. 어떻게 중복되지 않는 대상자를 가려낼 것인지 어렵다.
- 서비스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아산사회복지재단 밀반찬배달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 제안서에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면 노인복지관협회의 협조 하에 재단에서 함께 검토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 사업 내용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사업과 중복 운영될 것이다.

- 다른 방안으로는 서비스 제공방식과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1:1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제한한다.
 -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서 진행하되, 경로당 이용노인이외에 재가노인을 함께 참여시키는 형태이다. 고창군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사례를 볼 수 있다(프로그램 내용은 <부록 4> 참고).
 - 건강체조교실이나 치매예방프로그램은 현재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이 아니라,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건강허약노인일수록 경로당 등 외부 출입이 쉽지 않으며, 우울증도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장소가 마을이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의 기준을 10~15명보다 적게 해야 할 것이다. 맞춤형 서비스는 10명 이내의 소수가 참여할 때 가능하다.

- 농촌노인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어서 일명 ‘1일 동행’, ‘1일 외출 지원’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령자 병원 동행 서비스는 병원 들러서 진료 받고, 장도 들르고, 목욕도 하는 등 집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동선에서 필요한 일들을 같이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을별로 일정을 정해서 어르신 외출 일로 운영, 마을 차원에서 일정을 정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 자체적인 운영이 필요하게 된다.
 - 1일 프로그램으로 하여 송영서비스 점심식사와 함께 마사지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결합한 서비스 필요, 비용측면에서도 효과적이다. 지역에서 재가노인을 오전에 지역주민(자원봉사자)이 주민자치센터로 모시고 와서 점심을 함께 먹고, 마사지,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밑반찬을 드리는 등 하루 외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밖에 욕구에 따라서 목욕, 병원동행, 장보기서비스 등이 함께 묶일 수 있다.

2.3.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 지자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 단위 자원봉사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자원봉사조직을 통해 지역사회 스스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 자원봉사자를 통해 일차적인 돌봄이 가능하다.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웃을 돌보는 형태로 들여다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공공이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알리는 것이다.

- 재가복지서비스는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고비용 서비스가 될 수 있다. 현재 제공되는 재가복지서비스는 자원봉사조직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재능기부사업에서 지자체 봉사단체 지원하는 사업과 연계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및 중앙부처, 민간에서 실시 중인 복지·문화 사업 중에서 보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분석하여 농촌지역에서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2장에서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문화 사업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서 사업안내 자료 등 문헌을 검토하고, 기관을 방문하여 사업 운영 실태를 파악하였다. 첫째, 지역사회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의 사업 내용을 제시하고, 그 중 재가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장수노인장애인복지관·고창군노인복지관·진도노인복지관·의성군노인복지관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농촌지역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및 서비스 내용을 의성노인복지센터 사례와 함께 살펴보았다. 셋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노인 맞춤형 처방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담당자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전라

북도 사회복지심부름센터사업을 소개하였다. 다섯째,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농가먹기운동 사례를 조사하였다. 여섯째, 푸드뱅크/푸드마켓 사업은 선운사기초푸드뱅크와 고창군 푸드마켓을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 복지재단 등 외부 지원 사업으로 아산사회복지재단과 한국문화예술포육진흥원 사업을 소개하였다.

- 제3장에서는 농촌지역 복지·문화 사업의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정리하였다. 현재 지역에서 보편적인 사업인 밑반찬배달서비스, 세탁서비스, 건강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목욕서비스, 복지셔틀버스 운행, 병원동행 및 장보기 대행서비스 등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신규 복지문화사업 추진 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사업 목적, 인력 지원, 서비스 양의 확대보다는 접근성 강화 등이 도출되었다. FGI 분석 결과, 향후 농촌 복지문화 사업의 추진 방향은 개별 단위 사업 지원보다는 전달체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원거리지역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거동 불편 재가노인으로 확대 운영, 자원봉사자 최대한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 제4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촌지역 복지·문화 사업의 추진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 방향은 농촌지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내용 발굴이 아닌 현행 전달체계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나는 원거리 지역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른 하나는 거동 불편 재가노인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작은 농촌복지관 운영’을 제안한다. 지역의 복지관을 거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원거리 지역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해당 지역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는 공간을 마련하고,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1~2명을 상주시킨다. 후자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 마을 스스로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것

이다. 외출이 용이하지 않은 농촌노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 지원과 가정방문이 필요하다.

- 농촌형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지자체와 민간 복지기관)과 함께 전담 인력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2. 결론 및 함의

- 농촌 복지·문화 사업은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전달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전달체계로는 아무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지라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촌주민은 여전히 배제되기 쉽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사람(예: 사회복지사)이 사람(예: 거동 불편 노인)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변화·개선되는 것이다.
 -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람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 한 문제가 개선되기는 어렵다.
 - 사람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이외의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지원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확장된다. 지역의 분위기가 쇠신된다.
 -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부족한 사업비는 외부 공모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 농촌지역에는 활용할 수 있는 유휴공간들은 있고, 그동안 복지·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이 공간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배치된 인력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선 주민들이 모여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보면 미처 몰랐던 다른 욕구를 발견하여 추가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늘어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이 일어날 것이다.

- 농촌지역에서 인력에 대한 지원은 고용 창출이라는 측면과 함께 고령화된 지역에 젊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다.

부록 1

사회복지사 인터뷰 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제로 수행 중인 ‘사례연구를 통한 농촌 복지·복지 모형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입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2016년도 추진 예정인 *****사업이 내실을 기하기 위한 방안 모색입니다.
 - 다음 사업을 지자체와 각종 단체(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가 연계하여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
 - * ① 거동 불편 어르신 밀반찬 배달 서비스, ② 이동식 세탁소 운영, ③ 어르신 관절염 예방 등 건강 체조 교실 운영, ④ 어르신 대상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운영, ⑤ 복지 셔틀 버스 운행, ⑥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⑦ ICT 복지 달력 제작, ⑧ 글쓰기·독서 교실, ⑨ 고령자 병원 동행 서비스, ⑩ 고령자 정보기 대행 서비스 등의 사업 등
 - 배후마을 단독추진이 어려워 중심지와 연계가 필요한 사업 중심
- FGI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위의 10개 사업 중에서 귀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2) 귀 기관에서 새롭게 혹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이 무엇입니까?
 - 3) 지역사회에서 이미 수행 중인 사업들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 4) 최대 5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시겠습니까?
 - 5) 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지역사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어떻게 협력하실 수 있을까요? 각 기관에 어떠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부록 2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중에서 재가노인관련 서비스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목 적

- 경제적·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함

□ 명 칭

-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 위 명칭 사용 여부는 기관의 선택사항이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의 위 명칭 사용은 금지

□ 이용대상

-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단기보호서비스 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②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여 시·군·구청장이 의뢰한 자
- ③ '08.7.1.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외의 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 지자체는 이용대상요건과 별도로 지자체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 ④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자 포함)

※ 시설 간 정보교류를 통해 한 노인이 여러 시설에서 동일서비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정원 및 실적관리

① 정원

- 정원규정 없이 지역사회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서비스 제공.
- 대상자가 서비스내용의 중분류(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세부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② 실적관리

- 관리대상자 수 산출 : 관리대상자 ○○○명
 - ※ 관리대상자중 중점관리 대상자 50명이상 확보해야 함
 - ※ 중점관리대상자 : 위기상황 또는 건강상태 악화가 예측되는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제공내역 및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를 말함 (유급, 무급 봉사원 파견대상자 포함)
- 정기적인 사례관리
 -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한 제공서비스 점검 실시
 - 사례관리 기본 절차 및 양식 : 책자 별도 송부
- 서비스별 제공 실적산출 : 제공된 서비스별 실적을 산출하여 연간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수치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함
- 시설장은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대상자 일부에게 서비스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의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

③ 기타

- 관리대상자 수 및 서비스 제공 내용과 이에 따른 실적이 차년도 재가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적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서비스내용: 방문요양서비스 내용과 중복 불가

- ① 예방적 복지와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역별 프로그램(중분류)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서비스(소분류)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② 긴급지원사업은 필요시 장기요양서비스 및 노인돌봄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가능
 - ※ 지역조직망, 전산기기 등을 활용하여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권장
 - ※ 정기적·일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긴급지원 사업으로 간주될 수 없음
- ③ 서비스 내용 중 교육지원프로그램은 이용대상자, 보호자 및 지역주민(자원봉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다양한 내용으로 실시하여 안전망 및 긴급지원네트웍 구축에 활용
- ④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지역협의체 구성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하고, 필요서비스의 즉각 지원을 도모

부표 2-1. 재가지원서비스 내용(예시)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급식 및 밑반찬서비스 • 행정지원서비스 • 김장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서비스 • 명절·생신서비스 • 차량이송서비스 • 장보기서비스
	정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지지서비스 	
	주거 환경 개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배서비스 • 장판교체서비스 • 전기수리서비스 • 방역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일러수리서비스 • 번기수리서비스 • 편의시설개보수(문턱 제거 등) • 집수리서비스
	여가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들이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체험서비스
	상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서비스 	
	지역사회자원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결연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연계서비스

대분류 (사업)	중분류 (프로그램)	소분류(서비스)	
		※ 하단의 서비스 내용은 각 영역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을 예시한 것임 ※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시설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음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확인서비스 • 생활교육서비스 • 노-노케어서비스 • 보청기, 틀니제작 의뢰서비스 • 장수사진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수술서비스 • 건강검진서비스 • 의료연계서비스 • 전·월세자금지원서비스 • 노인돌봄기본 • 노인돌봄종합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종교육 • 보호자교육 • 응급처치교육 • 낙상예방 • 치매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예방 • 대인관계기술 • 자살예방 • 이성교육
	지역사회 네트워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재가협의체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
긴급지원사업 (긴급서비스)	긴급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지원서비스 • 무선페이징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호출서비스 • 화재, 가스유출감시서비스

□ 시설 및 인력기준

① 인력기준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장
1명	1명	1명

- 시설장: 사회복지사자격증, 의료인면허증 소지자로 상근하는 자
 - ※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겸직가능
-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 ※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외의 직원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당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직원이 겸직 가능하나, 시설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직원을 겸직으로 할 경우 사회복지사를 추가 배치하여야 함
- 노인결연(500인 이상)시, 전담직원 1인 별도 배치(해당사업기관에 한함)

② 시설설치기준

- 전용면적 $33m^2$ (연면적기준)이상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
○	○	○	○

- 통신설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함
-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와 시설 공용 불가
- 다른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및 장기요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사무실면적($33m$)을 추가로 확보한 경우에만 같은 공간 활용 가능하되, 각 시설(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자원봉사자실)의 용도에 맞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를 갖추고, 용도별로 구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시설 운영기준

가. 개념

-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에게 지역사회 내에서 방문요양,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건물의 규모

- 지원기준 : 연면적 $314m^2$

다. 시설의 유형

- 방문요양 + 주간보호 + 단기보호
-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라. 이용인원

- 방문요양 + 주간보호(10명) + 단기보호(5명)

마.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및 직
원배치 기준,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10) 준용

□ 정부 보조금 관리

-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사단법인·종교법인 등이 지원받은 정부 보조금
(기능 보강비)은 반드시 해당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함
-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기능보강비)은 우선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되도록 관리
- ※ 2006년~2009년 신축비 및 장비보강 지원 사업 종료

■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 시설 설치기준

가. 개념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노인의 가정을 요
양보호사가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낮 동안 또는 단기간 통
원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 시설

나. 시설 규모

- 연면적 973.5 m^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및 단기보호 등 서비스 제공)

다. 주요사업

- 방문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통원서비스: 주간보호, 단기보호
- 사례관리 서비스: 노인상담, 재가노인 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
- 기타 사업 : 시·군·구가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라. 이용인원 규모

- 방문서비스
- 통원서비스 : 주간보호 30명, 단기보호 10명

마. 시설 및 인력기준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용하되, 종합시설임을 감안하여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함

○ 방문간호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용

- 사무실, 강당, 상담실, 회의실, 주간보호 생활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욕실, 작업 및 일상동작훈련실, 단기보호 침실, 식당 및 조리실, 자원봉사자실 등
- 용도별 시설 면적은 아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필수 시설〉

- 주간보호 생활실(30명 정원) 및 단기보호 침실(10명 정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 준용
- 세면장 및 목욕실 : 13.2 m^2 내외(1일/1회, 40명 기준)
- 식당 및 조리실 : 33 m^2 내외
- 물리치료실 : 33 m^2 내외
-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 66 m^2
- 사무실 : 66 m^2 내외
- 세탁장, 통신실 등 기타 부대시설 :198 m^2 내외

〈권장 시설〉

- 간호사실 및 요양보호사실 : 19.8 m^2
- 부대시설 : 66 m^2 (복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
- 상담실 : 16.5 m^2
- 회의실 : 49.5 m^2 (층별 1개소, 3층 기준)
- 자원봉사자실 : 33 m^2 내외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시설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사업개요

- 목적
 -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 서비스대상
 -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독거노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
- 제공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중에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2007년부터 실시
 -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요보호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건강·영양관리 등의 생활교육, 보건·복지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 대상자 선정

- 주민등록 상 동거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제외대상: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자활근로에 의한 간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보훈처 복지도우미, 기타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의 가사간병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 기초생활수급자 등 급여성서비스 대상자는 무조건적인 제외 대상자가 아님에 유의(판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지역내 전체 독거노인을 판정기준에 따라 낮은 점수 순으로 정렬하여 사업규모만큼 선별
- 대상자 선정절차
 - ① 현황조사 대상자 확정(시군구): 주민등록상 독거노인, 이통반장 등에 의해 발굴된 독거노인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확정
 - ② 현황조사 실시(수행기관): 확정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생활관리사가 현황조사 실시
 - ③ 사업 대상자 추천(수행기관):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 관계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자살·학대 고위험군,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85세 이상 고령자, 판정기준에 따라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 ④ 서비스 신청(대상자): 추천된 사업 대상자가 서비스 신청서 작성 제출
 - ⑤ 서비스 자격 결정(시군구): 신청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자격확인 후 자격 결정 * 중복·제외 대상자 확인 후 결정
 - ⑥ 서비스 제공(수행기관): 생활관리사 배정 및 서비스 제공
 - 생활관리사 1명당 기본서비스 평균 25명 수준

□ 서비스 제공내용

- 안전확인서비스
 - 주기) 방문 주1회 이상, 전화 주2회 이상 실시. 단 폭염, 한파 및 폭설 특보 발령 기간 동안에는 일일 실시
 - 서비스내용) 대상자의 건강상태, 환경변화 및 욕구과약 등 안전확인 실시
 - 서비스결과 등록) 안전확인 결과를 취약노인지원시스템에 등록
 - 서비스연계 등

부록 3

의성군노인복지관 기관 개요 및 프로그램 내용¹⁰⁾

1. 기관 소개

- 운영 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 운영 주체: 대한불교조계종 제 16교구 본사 고운사
- 시설 현황: 부지 818평(2,704m²), 건평 428평(1,416.2m²)

층수	시설
옥상	게이트볼장
2층	강당, 경로식당, 교실2
1층	관장실, 사무실, 장기·바둑실(도서실, 휴게실 겸용), 물리치료실, 교실1(컴퓨터실 겸용), 서예실, 체력단련실
지하층	당구장, 탁구장, 세탁실(이·미용실, 샤워실 겸용), 취미교실, 보일러실, 휴게실(노래방, 시청각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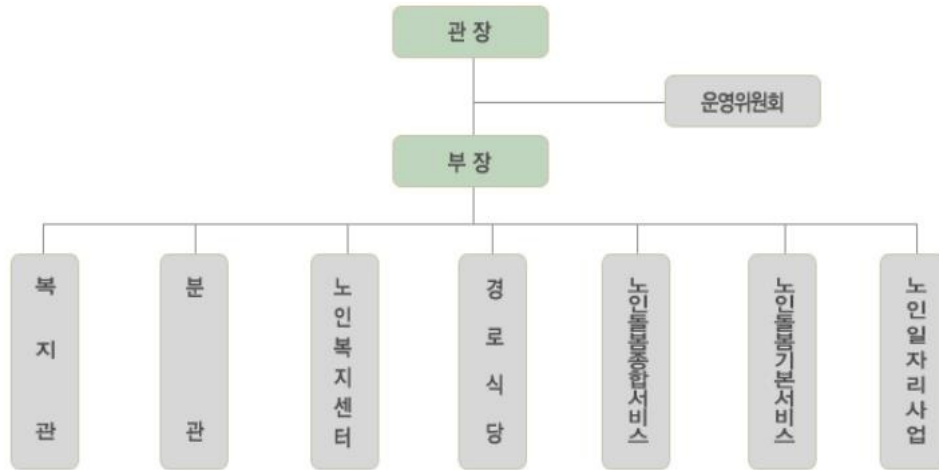
○ 조직도

- 의성군노인복지관은 복지관을 비롯하여 분관,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센터, 사회서비스마우처 사업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등 노인대상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분관은 본관에서 차량 이동시 40~50분가량 떨어진 안계면에 위치하고, 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¹¹⁾되면서 복지관에서 분

10) <부록 3>은 기관 홈페이지(<http://www.smail.or.kr/board/index.php>)의 내용과 기관 홍보용 자료, 기관 로비 게시판에 게시된 프로그램표 등을 정리한 것이다.

11) 기존의 저소득층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복지관에서 무료로 제공해 오던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등급판정자 개인에게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영리 개인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비영리

리되어 별도의 건물에 있다.



<의성군노인복지관 조직도>

○ 복지관 직원 현황: 총 10명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물리치료사	관리기사	영양사	조리사	노인돌봄관리사
1	1	1	1	1	1	1	1	1	1

- 분관: 과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조리원 등 총 4명
 - 노인복지센터: 소장, 사회복지사 2명, 사무원 등 총 4명
- 복지관 본관 및 분관 회원 현황
- 2013년 11월말 기준으로 본관에는 2,500여명, 분관에는 1,2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다.

시설인 복지관 건물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부표 3-1. 연도별 신규 회원 등록 현황

(2013년 11월 말 기준, 단위: 명)

구분	등록 회원		이용회원(등록회원)							
			02-03	04-05	06-07	08-09	2010	2011	2012	2013
본관	남	682	315	122	116	83	35	11	28	24
	여	1,772	854	405	314	138	47	14	28	41
분관	남	324	-	-	170	109	14	31	29	26
	여	884	-	-	641	172	29	42	34	38
계	3,662		1,169	527	1,241	502	125	98	119	129

2. 이용 대상 및 방법

이용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성군 지역 내 60세 이상 어르신 • 복지관 이용을 위하여 회원 등록 필수 • 부부 중 한 사람 이상이 60세 이상일 경우 부부 모두 회원 등록 가능
회원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이용 어르신 본인 실비 부담 있음(등록비 5,000원) • 회원증 분실 후 재발급 시 5,000원 부담 있음 • 등록 절차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회원등록상담 (1층 사무실)</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신청서 및 서약서 작성 (주민등록증 지참)</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회원증발급</div>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복지관 이용</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료 (수급자 증명서 제출)
이용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토요일: 09:00 ~ 13:00 • 일요일 또는 국경일은 휴관
차량 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9인승 버스 (운행시간: 08:30, 09:00, 09:30, 10:00, 15:00)
경로 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료: 1인 기준 1,000원, 오전 11까지 식권판매 •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 관련서류 제출 시

3.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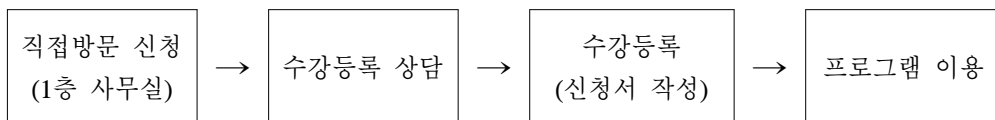
□ 본관 및 분관

1) 상담 사업

	내용
신규 회원 상담	신규 회원 이용 상담,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 방법 안내
일반상담	정보(건강, 프로그램 등)제공, 일상생활 상담, 프로그램 이용 상담
전문상담	건강, 법률, 경제 등

2) 사회교육사업

- 이용대상 : 복지관 등록 회원 누구나
- 수강등록기간 : 1월, 7월(수강 등록은 2주 전 공고하며, 정원제 선착순 모집)
- 접수장소 : 복지관/분관 사무실
- 등록비용 : 학기별 약 20,000원(신청자 및 프로그램 별 차이 있음)
- 등록절차



- 사회교육 프로그램 현황
 - 기초 교육: 한글교실, 산수교실, 한문교실
 - 외국어교육사업: 일어교실, 영어교실
 - 정보화교육사업: 컴퓨터 교실 기초반, 중급반
 - 건강교육사업: 댄스스포츠, 현미 덤벨 체조, 라인댄스, 탁구교실, 단전호흡, 코리안 살사
 - 예능교육사업: 서예교실, 합창교실, 한국무용, 하모니카 교실
 - 취미교육사업: 가요교실, 장구교실, 사물놀이, 난타교실
 - 특별사업: 새해 "복" 나누기, 그린데이, 행복등 사업, 어버이날 기념행사, 초청 특강, 전통놀이대회, 일일호프, 국화전시회, 자원봉사자 교육, 사회교육프로그램 발표회 및 종강식 등

부표 3-2. 의성군노인복지관 본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

프로그램 명		정원	수업요일	프로그램 명		정원	수업요일
한글교실	기초반	15명	월, 목	한국무용	기초반	15명	월
산수교실	기초반	10명	월, 목	현미 덤벨체조	기초반	40명	금
한문교실	기초반	10명	화	장구교실	기초반	20명	금
일어교실	기초반	10명	수	사물놀이	기초반	25명	금
영어교실	기초반	10명	금	난타교실	기초반	35명	월
서예교실	기초반	15명	수	댄스교실	중급반	25명	화
하모니카 교실	기초반	15명	수	합창교실	-	45명	월
탁구교실	기초반	10명	화, 목	무료 프로그램			
	중급반	15명					
컴퓨터 교실	기초반	10명	화, 금	가요교실	공개수업	200명	수
	중급반	15명					
라인댄스	기초반	20명	수	단전호흡	공개수업	30명	목
코리안 살사	기초반	25명	목	댄스교실 초급	공개수업	50명	목

부표 3-3. 의성군노인복지관 분관 2015년도 하반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시간표

구분	1층 교실	1층 강당		2층 p/g실 탁구장	2층 봉사자 및 상담실	2층 교실	당구장
		오전	오후				
월	컴퓨터초급 10-11시	장구교실1 10-11시	생활체조 1-2시	우쿨렐레 9-11시	차문화교실 1-2시	대관	등록회원 이용
	컴퓨터중급 11-12시	장구교실2 11-12시	한국무용 2-3시	사회교육 프로그램 11-12시	-		
화	대관	건강 체조 10-11시	밴드요가 1-2시 (공개)	탁구초급레 슨 10-12시	-	서예교실 10-12시	
	한문교실 1-2시	친교댄스 11-12시	기타교실 3-5시 요요공연단	탁구장이용	-	대관	
수	책읽는교실 10-11시	리듬 짝 교실 10-11시	단전호흡 1-2시 (공개)	대 관	-	대관	
	영어교실 1시-2시	댄스교실 11-12시	기타교실 3-5시 요요공연단	탁구장이용	-		
목	대관	라인댄스 10-11시	사물놀이 1-2시	탁구초급레 슨 10-12시	-	서예교실 10-12시	
	스마트폰 활용교육 1-2시	노래교실 11-12시 (공개)	난타교실 2-3시	탁구장이용	-	대관	
금	책읽는교실 10-11시	영화상영	연극교실 1-3시	탁구장이용	-	대관	
	한문교실 1-2시	가요교실 11-12시	대관	대관	-		

3) 보건·재활 증진사업

구분	이용 시간	이용 방법	내용
물리치료실	09:00~15:00 (월~금)	당일 선착순 접수	적외선 치료, 초음파, 간섭파 치료, 저주파 치료, sand bad
건강증진실	09:00~18:00 (월~금)	자유 이용	체력단련실(1층), 탁구장, 당구장(지하) 자 유 이용 가능
방문 진료	매주 수요일 (첫 주 제외)	물리치료실에서 선착순 접수 후 이용	의성군 보건소(구강검진 둘째 주 수요일, 이동진료 셋째 주 수요일) 유리한방병원(넷째 주 수요일)
기타 이용시설	09:00~18:00 (월~토)	자유이용 가능	시청각실, 장기·바둑실, 도서실 자유이용 가능

4) 복리후생사업

- 후원 사업: 사랑등 캠페인, 후원자감사편지발송, 일일장터, 후원활동
- 홍보 사업: 소식지제작, 회원안내장제작, 홍보활동, 홈페이지 제작, 달력
제작
- 직원 연구 개발사업: 관협회교육, 직무교육, 직원 연수
- 동아리 사업: 간담회, 물품 지원 등

구분	내용
동아리 분류	농악동아리, 국화동아리, 당구동아리, 탁구동아리, 장기·바둑동아리
가입 절차	사무실 문의 (1층) → 동아리 회장과 가입 상담 → 신청서 작성 → 동아리 활동
활동 기간	연중 계속
활동 내용	공연활동(전시회) 및 대회참가(전국 대회, 지역 교류전 등)

5) 자원봉사관리 사업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자원봉사자교육		회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복지관 운영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유도를 통해 지역사회내의 참여 욕구를 확산
간담회		외부에서 활동을 오는 봉사단에 대해 활동에 필요한 물품지원과 감사편지 발송을 통 활동격려 및 다양한 문제점 및 의견사항을 수렴하여 발전가능성을 모색
자원봉사자감사편지발송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동영역의 확대기회 마련과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
자원봉사자활동지원		경로식당 봉사자들에게 월별 간식비 지원을 통한 봉사활동의 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
실버자원봉사문화체험		실버자원봉사자들의 타 기관 시설견학 및 문화체험을 통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소속감을 증대 시킬 수 있도록 함.
웃음꽃 봉사단	분기회	동, 서 복지관 등록된 웃음꽃 봉사단의 정기적인 월례회, 간담회, 월별 활동지원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사업 실시
	간담회	
	문화체험	
	활동지원	
자원봉사자의 밤		자원봉사자들의 1년 동안 실시한 봉사활동에 대한 보답의 뜻 전달 과 기념식 실시

6)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

- 경로식당

- 지원내용 : 1식 3찬
- 점심시간 : 12시 ~ 13시(월~금)
- 식권배부 : 09시 ~ 11시, 안내데스크에서 배부.
- 식권구입 : 1인 1,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유의사항 : 회원증 미 지참 또는 배부시간 외 방문 시, 식사제공을 하지 않음.

- 식사배달 및 영양 급식

프로그램명	세부내용	지원시기
식사배달	방문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한 저소득노인과 수급자들에게 정기적인 식사배달 서비스 지원	매주(월-금) 중식제공
영양급식	저소득노인과 수급자들에게 정기적인 영양식 지원을 통한 재가서비스 지원	매월 1회

7) 노인돌봄기본서비스

- 지원 대상: 소득수준, 부양자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홀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열악하여, 노인관련 노인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 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지원 절차
 -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생활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조사함.
 - 도움이 필요할 경우, 833-6006으로 전화 연락 또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알려 주시면 생활관리사가 우선적으로 방문하도록 함.
 -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 중 도움이 가장 필요한 어르신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움을 제공.
- 의성군 배치 현황
 - 의성군 지역 면별로 생활관리사 36명과 서비스 관리자 1명 배치

8) 노인일자리사업¹²⁾

구분	세부내용	구비서류
교육형	생활제조, 한글교실, 한문교실 등에 강사로 파견	신분증, 일자리 지원 신청서 작성
복지형 (노-노 케어)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편지쓰기, 생활상담 등 사회활동지원서비스: 간단한 민원업무대행 등 생활지원서비스: 청소, 빨래, 생필품 구매등 보건의료서비스: 병원동행, 안마, 목욕, 같이 운동하기 등	

- 신청기간: 1~2월(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 월 200,000원

12) 2015년 사업안내부터 ‘노인 사회참여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9) 경로당 활성화 사업

- 대상: 의성군 내 경로당 중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로당 선정 후 실시
- 세부사업내용

프로그램	일정	내 용	비 고
물리치료서비스	1월~12월 (경로당별 주1회)	복지관의 물리치료기 활용	물리치료사
영화상영		영화상영	사회복지사
가요교실		가요교실	가요 강사
요가교실		요가수업	요가 강사
현미덤벨체조		현미덤벨체조 수업	현미덤벨체조강사
댄스스포츠		댄스스포츠 수업	댄스스포츠 강사
생신상차리기	1월~12월 (경로당별 반기1회)	선정 경로당 월별 생신자 확인 후 생신상차리기	사회복지사
한가위 옷놀이	9월중 (경로당별 1회)	경로당 회원들의 단합을 통한 친목도모	
영정사진	연1회	영정사진 촬영	
야외나들이		경로당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와 일상생활의 즐거움 제공	
임원리더쉽교육	년2회	경로당 임원들의 경로당의 전문 화 및 활성화 마련	

부표 3-4. 2014년 경로당 활성화사업 일정표

구분	월	화	수	목	금
방하리 경로당	댄스스포츠 13:30-16:30				사교댄스 13:30-16:30
					물리치료13:30 -15:00
경신아파트 경로당	사교댄스 13:30-16:30	워킹댄스 13:00-14:00	생활요가 14:00-15:00	가요교실 13:00-14:00	물리치료 13:30-15:00
화전2리 경로당	현미덤벨체조 13:30-16:30				댄스스포츠 13:30-16:30
중리2리 경로당	생활체조 13:30-16:30				물리치료 13:30-15:00
읍분회 경로당				생활체조 13:30-16:30	
원당1리 경로당		현미덤벨체조 13:30-16:30			
서변1리 경로당		생활체조 14:00-16:00		생활체조 14:00-16:00	

주: 색이 들어간 프로그램은 일자리 사업과 연계되어 있음(복지형 노노 케어).

부록 4

고창군노인복지관 “곱디고운 할매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사업실행계획서

과 정	민간협력활성화사업 & 지역맞춤형복지프로그램 지원 사업			
강의기간	2015.10.15 ~ 2015.11.18	대상자	15명	
강의회수	주 1회	강의시간	총 5회	
강의제목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장 소	대산면사무소	
강의도구	피부 관리 용품(아로마 오일, 수건, 스킨, 로션, 영양 크림, 색조화장품등)			
구분	교육내용	진행방법	시간	비고
1회	- 서로알아가기 - 봉사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설명하고 접근	통성명 후 손을 맞잡는 것으로 서로의 온기를 느껴보는 시간을 갖는다.	1시간	눈
2회	- 마주보기 ① - 봉사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설명하고 접근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 손맛사지를 해주며 손 자극을 하였을 때 통증이 있는 곳을 찾아보고 온기를 나눈다.	1시간	손
3회	- 마주보기 ② - 봉사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설명하고 접근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 귀 마사지를 해주며 귀를 자극하였을 때 통증이 있는 곳을 찾아보고 온기를 나눈다.	1시간	귀
4회	- 쓰다듬어주기 - 봉사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설명하고 접근	어르신들께 핸드링 관리를 진행하고 혈 자리를 자극해 혈액 순환을 돕는다.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린다. 예쁜 미소를 만들어 드리기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1시간	얼굴
5회	- 활짝 피어주기 - 봉사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편안하게 설명하고 접근	어르신들께 핸드링 관리 및 화장을 해드린다. 환하고 곱게 화장한 얼굴로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한다.	1시간	화장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를 해 드리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친구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유도 한다. - 보조 강사 선생님 동행 하에 진행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이해를 돕는다. - 디테일한 강의 스타일 보다는 지식의 이해도가 다소 낮은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한다. 				

참고 문헌

- 김정연·조수희·이민화·성순아. 2010.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농촌중심지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 충남발전연구원.
- 박재홍. 2013.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강원도형 광역 사회통합(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월간 복지동향, 182호, 37-45.
- 보건복지부. 2013. 『2013 노인복지시설 현황』.
- 보건복지부. 2014a. 「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 보건복지부. 2014b. 「2014 노인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 2015a.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
- 보건복지부. 2015b. 「201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II」.
- 보건복지부. 2015c. 「2015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 보건복지부. 2015d. 「제III권 2015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20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성주인·이동필·권인혜. 2008. 「국토 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한 농촌 중심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박시현·심재현·윤병석. 2013.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2/2차연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준·임형백·윤원근·최석환·김기호·김도영·박상철·황승기·황인유. 2010. 「기초생활권 중심지 계층별 적정 서비스 공급방안」.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역발전위원회.
- 조미형·박대식·최용욱. 2013. 농촌노인의 건강관리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미형·박대식·남승희. 2014. 농촌 지역사회기반(communitiy-based) 복지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Irwin, E. G., Isserman, A. M., Kilkenny, M., & Partridge, M. D. 2010. A century of research on rural development and region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92(2): 522-553.

-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http://www.bokun.or.kr/>>(2015.11.10. 조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kaswc.or.kr/>>(2014.10.13. 조회).
-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홈페이지. <<http://www.kfvc.or.kr/>>(2015.11.18. 조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 <<http://www.hinet.or.kr/>>(2014.10.13. 조회).



사례연구를 통한 농촌 복지문화 모형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TEL. 044-201-1000 <http://www.mafra.go.kr>